

2018 유네스코 ESD 정책 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2018년 12월 7일 (금) 13:30-17:00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유네스코 헌장(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16일

2018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목 차

I. 행사 일정	6
II. 행사 개요	7
III. 참가자 소개	8
IV. 발표 및 토론 자료	13
세션 1 – 기초강연	13
◆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15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	
세션 2 – 주제 발표	25
◆ SDGs 달성과 ESD 강화를 위한 법률적 보완 및 재정 확보 방안	27
(이재영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환경교육과 교수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	
◆ SDGs를 기회로 학교 교육 혁신하기: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과 교육적 수행	37
(안재정 송내고등학교 교사)	
◆ SDGs 이행을 위한 지역 단위의 ESD 리더 양성 전략	49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교수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SDGs와 ESD: 기업의 기여 가능성	67
(손승우 유한킴벌리(주) 커뮤니케이션 & CSV 본부장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	
세션 3 – 라운드테이블	73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초석, 지속가능발전교육	75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과 지자체 평생교육의 방향성	77
(이상국 오산시 평생교육과장)	
◆ 양질의 지속가능한 유초중등 교육(ESD)에 관한 소견	82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대중과 소통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85
(이윤녕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육뉴스부 기자)	
◆ 학교, 시민, 마을, 기업과 함께하는 ESD	89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략분과위원장)	
V. 부록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4	91

I. 행사 일정

2018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포럼 세부일정

시간	일정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4:00	(사회: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참석자 소개 • 개회사: 김광호(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축사: 이선경(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 문태훈(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14:00-15:00	(사회: 임현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본부장) [기조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달성과 ESD 강화를 위한 법률적 보완 및 재정 확보 방안 (이재영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환경교육과 교수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 • SDGs를 기회로 학교 교육 혁신하기: ESD 교과 중점 교육과정과 교육적 수행 (안재정 송내고등학교 교사) • SDGs 이행을 위한 지역 단위의 ESD 리더 양성 전략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정보관리보안학과 교수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SDGs와 ESD: 기업의 기여 가능성 (손승우 유한김벌리(주) 커뮤니케이션 & CSV 본부장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
15:00-15:20	사진 촬영 및 휴식
15:20-16:50	(사회: 최도성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 [라운드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자 5인 외 추가 참여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학균(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 이상국(오산시 평생교육과장) -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이윤녕(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육뉴스부 기자) - 권기태(희망제작소 부소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략분과위원장) • 패널 발언 및 질의응답
16:50-17:00	폐회

II. 행사 개요

1. 추진 배경

-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들 목표 중 교육이 단일 목표(SDG4)인 동시에 SDGs 전체의 달성을 위한 요건임을 강조하면서 SDGs 증진을 위한 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함.
-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은 SDG4 뿐만 아니라 SDGs 전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교육의 질’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SDGs 시대에 ESD는 환경교육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교육 전반의 노력으로 정의됨.
- 현재 유네스코는 2019년 이후 GAP을 이어갈 새로운 ESD 사업 전략인 가칭 “Global Action Programme 2030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chieving the SDGs (GAP2030)”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원국 의견을 수렴 중임. GAP 2030은 SDGs가 추구하는 세계를 만들어 갈 사회 구성원 양성에 있어 ESD가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오는 2030년까지 ESD 사업 전략의 초점을 SDGs 이행 촉진에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 상기 현황들을 고려해볼 때, 유네스코 Post-2019 ESD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국내외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여러 ESD 관련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 취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한위)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포럼’(이하 ESD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본 포럼에는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SDGs 시대의 ESD 활성화를 위한 국내 각 분야별 실천 방안을 논의·도출할 계획임.

2. ESD 정책포럼 개요

- 행사명: 2018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포럼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 일 시: 2018년 12월 7일 (금) / 13:30-17:00
- 장 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 참가자: ESD한국위원회 위원, 국내 ESD 및 SDGs 전문가, 기타 한위 ESD 사업·활동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Post-2019 ESD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추진 현황/과제 공유
 - SDGs 시대의 ESD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천 방안 모색

III. 참가자 소개

개회사/축사



김광호 사무총장

개회사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충청북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전문원, 교육부 교육정책과 과장, 주OECD 대표부 참사관, 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소 전문관 등 오랜 기간 교육 분야에서 활동했다.



이선경 위원장

축사 및 기조강연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로 있으며, (사)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 한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5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국가전략 개발에 참여한 이래 현재까지 ESD 영역에서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과학교육 및 환경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 과학교육 영역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역량, 교사교육, 학교전체적 접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 시민교육의 통합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중일환경교육네트워크(TEEN), 환경과학교이니셔티브(ENS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사교육네트워크(INTEL)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태훈 위원장

축사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행정 및 정책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으며, 서울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을 거쳐 1995년부터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지역개발학회,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환경정책론』, 『시스템 사고로 본 지속가능도시』, 『지속가능 도시론』 등이 있다.



조승래 의원

축사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으로 당선되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

축사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글로벌 네트워크' 이행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주제발표



이재영 교수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환경부의 중앙정책자문위원과 산림청의 산림교육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5 환경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학교 안팎의 환경교육 시설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와 광덕산환경교육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연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현재 충청남도 서천에 살면서 지역과 마을 중심의 통합적인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주제발표



안재정 교사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와 한국교원대 환경교육 대학원을 거쳐 현재 2004년부터 경기도 중등학교 환경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환경교육과 ESD 관련 다양한 관련 연구와 교육 과정, 교과서 등과 같은 교재 개발에 참여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써 환경교육과 ESD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오수길 교수

주제발표

지방의제21 추진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주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창의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한국NGO학회 이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2018, 공저), 『우리의 지속가능한 도시』(2017, 공저), 『민주주의, 종교성, 그리고 공화적 공존』(2017, 공저) 등이 있고, 번역서로 『세계 지속가능발전 도시』(2014, 공역), 『지속가능성의 도전』(2013, 공역), 『지속가능성 혁명』(2010) 등이 있다.



손승우 본부장

주제발표

공중관계커뮤니케이션을 전공(문학박사, 한양대)했으며, 현재 유한김벌리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책임경영 본부장과 더불어 ESD한국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유한김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과 CSV 경영을 추진해 왔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숲 가꾸기와 실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생명의숲 국민운동’,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과 화단을 학교숲으로 변화시킨 학교숲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시니어일자리기금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극복 프로젝트로 시니어 비즈니스 소기업 육성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도성 교수

사회

현재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푸른광주21협의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현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ESD 위원장 및 정책위원,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제5대 위원, 광주ESD교원연구회 설립(2013년) 및 운영(지도교수),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겸 이사 등을 맡으면서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맹학균 과장

토론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환경부 기후변화 정책 담당자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기여한 바 있다.



이상국 과장

토론

오산시 평생교육과장으로 ‘교육도시 오산’ 정책 개발, 혁신교육사업, (재)오산 교육재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학교교육 협력사업, 오산백년시민대학, 평생학습마을, 백년한글학교 운영,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네트워크 관리 등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9년간 교육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산시 교육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홍후조 교수

토론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의 국가사회 교육 현실을 토대로 교육 이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초저의 기초 탄탄형 교육, 초고-중학의 기본 튼튼형 교육, 고교의 진로 든든형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기준의 개발에 힘쓰면서 각종 주제별/대상별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일을 넘어 사회를 사회답게 가꾸는 일임을, 그리고 공교육이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기초로 자유민주정정의 통일과 인류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을 기르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윤녕 기자

토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EBS 교육뉴스부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출입하며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취재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기획보도로는 난독증 아이들의 학습권을 다룬 ‘글자에 갇힌 아이들’과 ‘수학포기자의 진실’, ‘한글교육의 불편한 진실’ 등이 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상’ 등을 수차례 수상했으며, 2017년에는 교육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 활동을 인정받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권기태 부소장

토론

1996년 환경과공해연구회를 시작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소속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만들고, 기본전략을 이행했다. 희망제작소에서 부소장, 소장권한대행을 지냈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정책을 연구해 왔다. 현재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략분과위원장으로 법제도 개선, SDG추진, 인식(교육)확산 등을 맡고 있다. 사회혁신연구소 대표이기도 하다.

IV. 발표 및 토론 자료

세션 1 - 기초강연

이선경(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던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불안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한 남북한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외에도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긴밀히 관련된 비닐 쓰레기 대란(2018년 3월말~4월초)과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2018년 7월), 새 정부의 에너지 방침과 관련하여 건설이 중단되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재개와 관련된 공론화위원회의 설립과 3일에 걸친 시민들의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의사결정(2017년 10월)등이 있다. 2018년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하는 중요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모든 쟁점들은 복잡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긴밀히 연계된다. 남북한 정상회담은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및 ‘SDG 16 평화, 정의 및 강한 제도’, ‘SDG 17 파트너십’ 등과 연계되고, 기후변화 문제는 ‘SDG 13 기후변화를 위한 실천’, ‘SDG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과 긴밀히 연계되며, SDG 8, SDG 9, SDG 11, SDG 12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물 문제 (SDG 6), 기아 문제 (SDG 2), 건강 문제 (SDG 3) 등과도 연계된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은 찾기 어려우므로 모든 SDGs와 모두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PCC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짐스키어 교수는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정도로의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면서 ‘에너지 체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맥그라스, 2018).

2000년 유엔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면서 설정한 기한이 2015년에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5년 9월 유엔은 포스트 2015 의제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다. 이 의제에는 인류가 2030년까지 공동으로 도달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169개의 하위목표가 포함되어 있다(그림 1 참조)¹⁾. 현재 각 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과제와 계획 및 성과 지표를 마련 중이거나 이미 마련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 3월부터 한국형 SDGs(K-SDGs)를 만들기 위해 200여명의 K-SDGs 작업반이 위촉되어 UN의 목표에 기반하되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제적인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 제 9기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8월에 구성되어, UN SDGs와 한국형 SDGs의 수행과 관련된 계획을 심의하고 정책에의 반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1) <http://www.un.org>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출처: <http://www.un.org>)

SDGs 17개의 목표 중 교육은 단일 목표 (SDG4)인 동시에 SDGs 전체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은 SDG4 뿐만 아니라 SDGs 전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SDGs 시대에 ESD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교육 전반의 노력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SDGs 달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과 관련하여 UNESCO를 중심으로 한 흐름과 논의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영역의 실행 방향과 관련된 논의와 노력을 추구하고자 한다.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과거와 현재: DESD, GAP

1. 과거: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DESD)²⁾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WSSD)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10년을 지정하도록 제안하였다. 2002년 12월 제57차 유엔총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강화와 이행을 전 세계에 요청하며 2005-2014년을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으로 정하였고, 세계 각국이 그 이행에 참여하고 유네스코가 선도기관으로 협력과 조정을 수행하였다(UNESCO, 2004; 이선경 외, 2005).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가치, 시행 방침을 모든 학습 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며, 이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 기반을 둔다(UNESCO, 2005).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맥락은 형식 교육(formal education)으로 지칭되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 무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 모두를 포함한다. 어떤 맥락에서든 간학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능력을 증진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한다(UNESCO, 2005). 유네스코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평가계획(The Global Monitoring Framework)을 세우고 이에 따라 유엔지속가능발전10년의 기간 동안 세 단계의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중 맥락과 구조(2009년), 과정과 학습(2011년), 성과와 영향(2014년)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발간되었다(Wals, 2009; Wals, 2012; Buckler, 2014).

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과거와 현재, 즉,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DESD)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국제실천프로그램(GAP)의 내용은 '이선경외(2014)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함.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의미는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과 학습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포괄하는 우산의 개념을 확산하여 제공하며,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학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Wals, 2012).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지역적, 국가적 차이로 인하여 여러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 실행되고 있지만, 유엔지속가능발전 교육10년과 이후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개진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성과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증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국제 협력을 통한 플랫폼 형성, 교육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반영, 국가 수준의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음이 보고되었다(UNESCO, 2014).

2. 현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국제실천프로그램 (GAP)

2014년 11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차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UNESCO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마지막 시점에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확인하며 여전히 남아있는 지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로부터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 on ESD: GAP)을 수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me on ESD: GAP, 2015-2019)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진보를 가속화하기 위해 모두가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을 재정향하고, 모든 영역의 교육과 학습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국제실천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실천영역은 정책 반영, 전 기관 접근, 교육자, 청소년, 지역사회의 5개 영역을 포괄한다(UNESCO, 2014).

- 정책: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하여 반영하고, 국가학습평가기준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고, 국제교육목표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하는 등 국제 및 국가 정책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반영하고자 한다.
- 교육과 연수 환경: 교육 내용과 방법 및 시설 등 모든 수준과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기관적 접근(whole institution approach)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관의 재정향을 추구하고, 전 기관 접근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교육자: 모든 분야의 교육자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의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대학 교직원, 의사결정자, 공무원, 민간부분 관계자 등을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 청소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지지하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온라인학습, 모바일학습 등 무형식, 비형식교육의 기회를 강화하고 참여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지역 사회: 학습을 위한 다자간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해결책 구상을 가속화한다.

유네스코는 5개 우선순위 실천영역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관계자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핵심 파트너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정부와 경험을 교환하고 국제실천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으로 ESD국제포럼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각 1회씩 GAP 핵심파트너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우선순위 실천 영역별 목표, 벤치마크 등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정기 모니터링을 시행할 메커니즘을 구축 중에 있다. 한국의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선순위 실천영역 중 두 번째(PN2)인 ‘연수와 교육환경’에 기여할 핵심 파트너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세 번째(PN3)인 ‘교육자’ 영역에서, 통영RCE는 다섯 번째(PN5)인 ‘지역사회’ 영역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핵심파트너는 매년 1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전체 회의와 각 영역별 회의를 통하여 논의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PN2, 즉 연수와 교육환경 영역의 경우 ‘학교/기관 전체적 접근(whole school/institutional approach)’을 중요한 화두로 삼아 활동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전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 요소들을 추출하는 작업과 이에 기반한 접근 절차, 사례 보고, 설문 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1회의 면대면 회의와 2-3회의 웹기반 회의, 이메일 소통, 댓가가 주어지지 않는 자원봉사적인 헌신 등은 한계를 가지며, 파트너 기관 중심의 활동 전개는 회원국의 활동에 기반하였던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에 비해 그 추진력과 성과가 제한적이다.

III. 미래: SDGs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미래에 대한 Post-GAP Position Paper

2018년 3월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된 제3차 GAP 핵심파트너 기관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기존의 각 영역별 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와 논의에 더해,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 방향과 관련된 초안이 공유되고 검토되었다. 2019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국제실천프로그램(GAP)이 종료되게 됨에 따라 그 후속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2030년까지 UN SDGs를 향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네스코 본부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ESD의 미래와 관련된 position paper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후 각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진단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ESD가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ESD가 독립적인 토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성찰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지향이 필요하게 되었다. ESD의 미래를 탐색하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 차원에서는 지역의 회원국들과 함께 4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현재의 GAP 및 ESD의 진행과 관련하여 놓친 것이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몇 가지의 화두를 발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 아오모리 심포지엄에서는 젊은이(young generation), 라이프스타일, 문제 많은 커뮤니티 등이 중요한 화두였으며, 독일 심포지엄에서는 열악한 지역에서 특정한 실행(action)을 유도하거나 유발하는데 pedagogy의 중요성 확인하게 되었다. 남아공 심포지엄에서는 극심한 빈곤 지역에서 ESD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확인하였으며,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는 재활용 프로젝트 사이트 방문 등을 통하여 경제적/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post-GAP position paper에서는 새로운 세대, 커뮤니티, 테크놀로지의 발전, 경제 구조, 극심한 빈곤, 변혁적 실행 등 여섯 가지의 중요한 화두가 강조되었다.

-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좀 더 가치적이고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선택과 연계할 필요 있고, 따라서 ESD와 가치 교육을 연계할 필요 있음.
- 커뮤니티(Community)는 ESD 실행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되며, 물리적, 가상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정의될 필요 있음. 따라서 ESD와 시민 교육의 연계 필요함.
- 테크놀로지의 진보(Technological advances)와 관련하여 기존의 낡은 ESD 문제가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새로운 위험을 등장시킬 수도 있으며, 따라서 테크놀로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비판적 사고력 강조됨.

- 경제적 구조(Economic structures)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을 지향하는 소비중심 사회에서 ESD는 대안적인 가치를 증진할 수 있으며, 정치적 참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극심한 빈곤(Extreme poverty)과 관련하여 ESD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지기도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전체적 접근 등에 초점을 두고 개선되어야 하며, 특정 인구 집단에 특정한 방법이 필요함.
- 변혁적 실행(Transformative action)을 위해서는 결정적 상황/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정한 수준의 분열이 필요하고, 실제에의 노출도 필요함.

실행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졌던 GAP 파트너 기관 네트워크는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게 된다. 구체적인 SDGs에의 지원을 위해 각 목표별 수행에 교수학습적인 지침을 유네스코 차원에서 제공하며, 각 나라는 이에 기반하고 각 나라의 맥락에 맞게 나름대로의 수행을 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개인과 단체 등 실제 실행 주체들의 노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인과 단체 수준의 노력을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제도화 하는 노력도 함께 수행되고, ESD 또는 SDGs 와 관련된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도 촉구하고 있다. 증거에 기반한 수행(evidence-based implementation)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를 모든 단계에서 고려하며, 각 영역별 flagship project 등도 수행되어 전파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을 각 회원국과 파트너들이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회의에서는 이상에 기반한 ESD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각 화두와 관련된 쟁점의 확인, 실행 방법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Position paper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래의 ESD의 명칭이 'ESD-for-SDGs'로 제안이 되었으나, 논의를 통해 'Education for SDGs' 등 다른 용어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UNESCO 본부 등 서로 다른 주체들의 역할과 참여 방식 등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다. 당시의 초안에 따르면 현재 GAP 파트너 기관은 영역별이 아니라 전체로 운영되며,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운영으로 파트너 기관의 참여가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반영되고 수정되어 2018년 7월 9-10일 태국 방콕에서 회원국의 정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9월-11월에 걸친 컨설팅 과정을 거쳐 다시 한 번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이는 2019년 4월 UNESCO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9년 7월 GAP 파트너 네트워크 회의에서 확정되어 2019년말 UN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램 2030

2018년 7월 9-10일 방콕에서 개최된 정부기반의 회의에서 ESD의 미래에 관한 2차 초안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수정된 3차 초안에 대한 회원국의 검토가 수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Post-GAP 이라고 하는 용어가 GAP2030으로 수정되었으며, ESD-for-SDGs 또는 Education for SDGs는 GAP2030 즉,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램 2030 (Global Action Programme 2030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chieving the SDGs, GAP2030)으로 수정되었다. GAP 2030은 SDGs가 추구하는 세계를 만들어 갈 사회 구성원 양성에 있어 ESD가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오는 2030년까지 ESD 사업 전략의 초점을 SDGs 이행 촉진에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3차 초안인 GAP2030 문서³⁾에서는 왜 이 문서가 준비되었는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DESD, GAP, SDG의 핵심 취지 및 전개과정(한계점 및 보안 등) 전반에 대한 소개, 필요한 성찰에 대한 기술, 이행 체계에 대한 부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실제 명칭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미래에 대한 유네스코 성명서 (A UNESCO position paper on the futur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이지만, 본문 중에서 GAP2030으로 지칭하였다.

1) 목적(Why this paper?)⁴⁾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이하 DESD)의 후속 프로그램인 국제실천프로그램 (2015-2019, 이하 GAP)의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유네스코는 2019년 이후 GAP을 이어갈 새로운 ESD 사업 전략 수립을 준비하게 됨.
- 범세계적 차원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후 본 성명서는 최종 검토를 위해 2019년 유엔 및 유네스코 사무국 측에 제출되며, 성명서 내용이 최종 승인된 후 Post-GAP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될 예정임.

2) 준비과정(How this paper has been prepared)

- ‘GAP 중간평가, 심포지엄, 자문’이라는 3가지 준비 작업을 중심으로 Post-2019 ESD 전략 수립을 준비해 옴.
- 특히 올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자문을 통해 Post-2019 ESD 전략 수립을 위한 유네스코 성명서가 작성 중에 있음.

3) 핵심 맥락 (Key contexts)

- DESD, GAP, SDG의 핵심 취지 및 전개과정(한계점 및 보완 등) 전반에 대한 소개

구분	주요 내용
DE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D 관련 교육/학습 전반에 대한 ‘인식 증진’(awareness-raising)에 기여 - ESD 관련 사업/활동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institutional support)의 필요성 제기
G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SD에서 제기된 ‘제도적 지원’에 대한 보완책 마련 · 핵심 파트너(key partner) 선정: 정부 부처, 교육/훈련 기관, 교육가, 청년, 지방 정부 등 · 5개 우선 활동영역(Priority Action Areas) 선정: 정책 증진, 변혁적인 학습 환경, 교육 담당자 역량 구축, 청년 역량강화 및 결집,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가속화 (5개 우선 활동영역을 위해 구축된 5개 파트너 네트워크가 지원) - GAP 중간 평가 결과 ‘목표대상 확대, 네트워킹 매커니즘’ 차원에서는 진전이 있으나, ‘기금 모집, 공동 프로젝트 개발, 타 영역 간 네트워크 협력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활동과 연계된 네트워크 효과, 정책 내 ESD의 반영’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SD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목표 가운데 교육 관련 목표(SDG4)가 설정되어 있으나, ESD가 단순한 교육 주제(thematic topic)에서 더 나아가 SDG4 및 그 관련 세부목표인 4.7의 일환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됨 - ESD의 ‘모호성’(vagueness)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SDGs와 연계된 분야에서 ESD를 보다 구체화시켜 이행해야 할 것임.

4) GAP2030 문서의 핵심을 정리한 내용 중 1) 목적, 2) 준비 과정, 3)핵심 맥락 등 일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에서 준비한 내용을 약간의 변안을 거쳐 사용함.

4) 성찰해야 할 사항들(Required reflections)

- ‘변혁적 실행, 구조적 변화, 과학 기술의 영향이 지대한 미래’라는 3가지 핵심 주안점을 중심으로 2019년 이후 ESD 이행 전략을 위해 성찰이 필요한 내용 제시
- 변혁적 실행: 변혁적 실행은 어느 정도의 교란을 필요로 하며, 변혁의 정도는 다양할 수 있음 (쟁점 인식, 복잡성 이해, 감정적 몰입, 깊은 동정, 헌신 등). 변혁적 실행을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적 접근 사용할 필요. 개인의 실행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가야 성공적일 수 있음. ESD의 과정에서 시민의식 중요.
- 구조적 변화: 개인 수준의 ESD 실천과 더불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할 필요 있음. 순환 사회, 공유 경제 등 대안적 가치에의 노출도 필요. 이때 극심한 빈곤, 인구 수준 등의 요소도 고려할 필요 있음.
- 과학 기술의 영향: 과학 기술의 발달은 미래의 모습을 지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기술의 발달은 양면적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전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을 필요와 첨단 과학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함.

5)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

- 프로그램명: Post-2019 ESD 이행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의 명칭으로서 “Global Action Programme 2030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chieving the SDGs (GAP2030)”을 제안
- 목표 및 접근법
 - GAP2030은 SDGs의 17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조, 회원국 활동, 유네스코 활동’이라는 3가지 측면을 활용해 GAP2030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안함.
- 구조
 - 5개의 우선 실천 영역: 정책, 교육환경, 교육자, 청년, 지역 등 그대로. GAP2030에서도 중요한 진입로 될 수 있음.
 - 파트너 기관: 현재 그대로 강조. 그러나 각 우선 영역별 협력 긴밀히 될 수 있도록 권장. 5개의 파트너기관이 모두 합쳐진 하나의 네트워크도 존재하도록.
 - UNESCO-일본 상 수상: 그대로
- 회원국 활동
 - SDG 4.7의 달성과 SDG4의 달성 위해 회원국의 노력 필수적
 - 정책: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ESD 통합하고 관련 정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 과정 필요.
 - 교육환경: 유아교육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의 전체적 접근 필요. 교육기관의 수준별 연계, 형식-무형식-비형식 교육의 연계 노력
 - 교육자: 학생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방법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 필요. 역량 증진 방법, 변혁을 실천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다양한 교수학습적 접근에 대한 이해 등 필요. 지식의 전수와 학습자 중심의 실행 모두 가능하게 하도록 교육자 교육 필요.
 - 청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핵심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창의성과 혁신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년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반영 필요.
 - 지역: 실제적인 변혁과 변혁적 실천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점 명확히 이해해야 함. 특히 도시 지역의 변혁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 필요. 또한 지역은 우선 실천 영역 즉, PN5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천 영역을 연계하는 지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네스코 본부
 - 각 국의 정책이 GAP을 반영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침 제공
 - 핵심 파트너들의 네트워킹 지원하고 플랫폼 제공, 다양한 주체 관련시키려 노력
 - 증거에 기반한 수행 지원할 수 있도록 쟁점 연구, 실행 구조 탐구 등 수행
 - SDGs를 위한 ESD의 중요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제공.
 - UN DESA, SDGs 관련 유엔기구와 연계 노력
 - 모니터링과 평가 수행, 설문, 관련 사례 수집과 공유, SDGs 수행과정에 대한 원리 발굴 등 다양한 모니터링과 평가 수행 예정.

I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서는 2019년 GAP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는 데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기여하기 위하여 준비된, 새로운 방향과 전략에 기반 한 GAP2030의 수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DGs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전략 수립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현황 및 향후 과제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여러 ESD 관련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취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특히, GAP2030 초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회원국에서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은 2019년까지의 GAP에서는 누락된 부분이었으며, 추후 전략 수립이나 내용 선정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후 이루어질 논의에서 각 영역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GAP2030에서의 ESD가 SDGs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ESD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 목표별 수행 사례 속에서 교육의 역할이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SDG4를 지원하는 ESD의 사례를 탐색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SDGs 속의 각 목표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례도 필요하며, SDGs 중 여러 목표들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례나 전략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역량과 연계한 접근(UNESCO, 2017), SDGs에 대한 이해와 사례 분석을 통해 각 SDGs를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서(Hoffmann & Gorana, 2017), SDG4 달성을 위한 현황 분석(UNESCO Bangkok, 2018) 등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DGs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과의 역할 분담 및 시너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활발히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세계시민교육은 그에 비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이들을 교육적 노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역량이 서로 유사하며,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들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나라에서의 SDGs를 달성하는데 교육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매트 맥그라스 (2018. 10. 8) 지구온난화: '인천 보고서'를 이해하는 7가지 질문. BBC 뉴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2018). Post-2019 ESD 추진을 위한 유네스코 성명서(Position Paper) 주요 개요. 미공개 문서
- 이선경, 이재영, 이순철, 이유진, 민경석, 심숙경 (2005).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연구. 대통령다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Blake-Persen, N. (2018). "China's plastic ban: Experts to other parts of Asia soar", Radio New Zealand (2018.4.5.) Available at <http://www.radionz.co.nz/news/national/354179/china-s-plastic-ban-exports-to-other-parts-of-asia-soar>
- Buckler, C. (2014). Shaping the Future We Want: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5-2014) FINAL REPR. UNESCO.
- Hoffmann, T. and Gorana, R. (2017). Teach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D EXPERTNET. ENGAGEMENT GLOBAL gGmbH. Germany.
- UN (2015). The Future We Want. United Nations.
- UNESCO (2005).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Paris: UNESCO.
- UNESCO (2014). UNESCO Global Action Programm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 UNESCO (2014). UNESCO Roadmap for Implementing the Global Action Programm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 UNESCO (2017). Lear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ESCO.
- UNESCO (2018). Paving the Road to Education: A Target-by-Target Analysis of SDG4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O Bangkok.
- UNESCO(2018a). ES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post-GAP position paper (Draft 11 April, 2018). UNESCO. Unpublished.
- UNESCO(2018b). A post-Gap position paper on the futur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Draft of for consultation (as of 15 June, 2018). UNESCO. unpublished.
- UNESCO(2018c). A UNESCO position paper on the futur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draft (revised draft after Technical consultation Meeting on the Future of ESD, 9-10 July 2018, Bangkok, Thailand). UNESCO. Unpublished.
- Wals, A. E. J. (2012). Shaping Education of Tomorrow. UNESCO.
- Wals, A. E. J. and Leij T. (2007). Introduction. In Wals, A.E.J. (Ed). Social Learning towards a Sustainable World. Wageningen Academic Publishers, The Netherlands. pp 17-32.

세션 2 - 주제발표

이재영(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환경교육과 교수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안재정(송내고등학교 교사)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교수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손승우(유한킴벌리(주) 커뮤니케이션 & CSV 본부장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

SDGs 달성과 ESD 강화를 위한 법률적 보완 및 재정 확보 방안

이재영(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환경교육과 교수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

- 17개 목표 각각에 대해서 개별 부처가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구조와 절차에 따라 내실 있게 진행하면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음. 이번 포럼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핵심 과제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거나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쟁점과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 근거를 만들 것인가에 있음

1. 법률적 보완 사항

가. SDGs 및 ESD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의무화

- 모든 교원들이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학점) 이상의 ESD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모든 교사들이 1급 정교사, 교감 및 교장 승진 과정에서 연수를 받을 때 일정 시간 이상의 ESD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숲해설가,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학교밖 교육과 관련된 법정 자격 취득을 위해 일정 시간(학점) 이상의 ESD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모든 공무원들의 임용, 승진 시험 및 연수 과정에 일정 시간(학점) 이상의 ESD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나. 예산 근거

- 본 발표문의 2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ESD 강화를 위해 기존의 관련 기금으로부터 0.1%(약 1천억원)의 분담금을 모아서 특별회계 계정을 마련
- 관련된 모법과 기금 관련 조항의 개정

다. 특별회계 예산 운영조직의 편성

- 지속가능발전법에 ESD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각 부처 또는 기금운영위원회로부터 파견된 분야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편성 및 운영 관련 조항의 신설: 가칭 국가ESD센터
- 새로운 예산 운영조직은 기존의 부처 경계를 넘어서 17개 목표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고통감소, 상황 개선을 위해 조직되도록 구성
- 센터에는 평생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각종 교육 관련 진흥원의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함

라. 예산을 집행할 사업 영역

- 17개 목표 중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사업은 제외
- 2개 이상의 부처와 연결되어 있으며, 민관학의 협력이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 각각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때 고통 받는 집단에 초점을 맞춰 세부 사업 계획 수립
 - ※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 에너지빈곤층, 탈학교청소년, 기후변화와 문화재보호 등

2. 예산 확보 방안

가. 추진방향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임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탈부처간 혹은 범부처간 접근을 위해서는 새로운 타입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각종 기금으로부터 일종의 분담금을 모아서 특별회계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래 기금으로부터 0.1% (1/1,000)를 분담금으로 모으는 ESD 특별회계를 설정: 1,000억원

표 23. 지속가능발전교육 특별회계 예산 출처(억원)

기금 명칭	주무부처	총액	SDG 주제	비고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172,695	8. 일자리	
과학기술진흥기금	과기부	2,030	9. 산업화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광진흥개발기금	문체관광	5,313	16. 사회문화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40,615	3. 건강	
국민체육진흥기금	문체관광부	15,978	3. 건강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	보건복지부	852	3. 건강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1,255	6. 깨끗한 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2,507	6. 깨끗한 물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16,182	16. 평화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체관광부	3,481	16. 사회문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재보호기금	문체관광부	1,270	16. 사회문화	
복권기금	농림축수식품	52,282		산림복지진흥원
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	338	3. 건강	
수산발전기금	해수부	7,269	6. 깨끗한 물	한국해양재단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부	4,869	5. 성평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언론진흥기금	문체관광부	331	16. 사회문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872	14. 수자원	
원자력기금	산자부	3,799	7. 에너지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3,614	3. 건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13,905	1. 빈곤 10. 불평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자부	37,810	7. 에너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정보통신진흥기금	과기부	7,272	16. 사회문화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737,283	11. 도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부	42,246	8. 일자리	
지역신문발전기금	문체관광부	86	16. 사회문화	
청소년육성기금	여성가족부	1,419	4. 교육	청소년활동진흥원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5,449	6. 깨끗한 물	
소계		1,181,022		

※ 총액: 2018년 운영계획 기준

나. 예상되는 걸림들

- 분담금을 제공할 기금이나 해당 부서의 저항
- 확보된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적으로 계획, 집행, 평가하기 위한 주체 설정과 절차 수립
- 기획예산처로서는 이미 기금으로 조성된 예산에서 새로운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에 불과함으로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할 수 있는 기사 링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담배규제가 필수적인 이유

<http://socialhug.co.kr/webzine/young/?p=762>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1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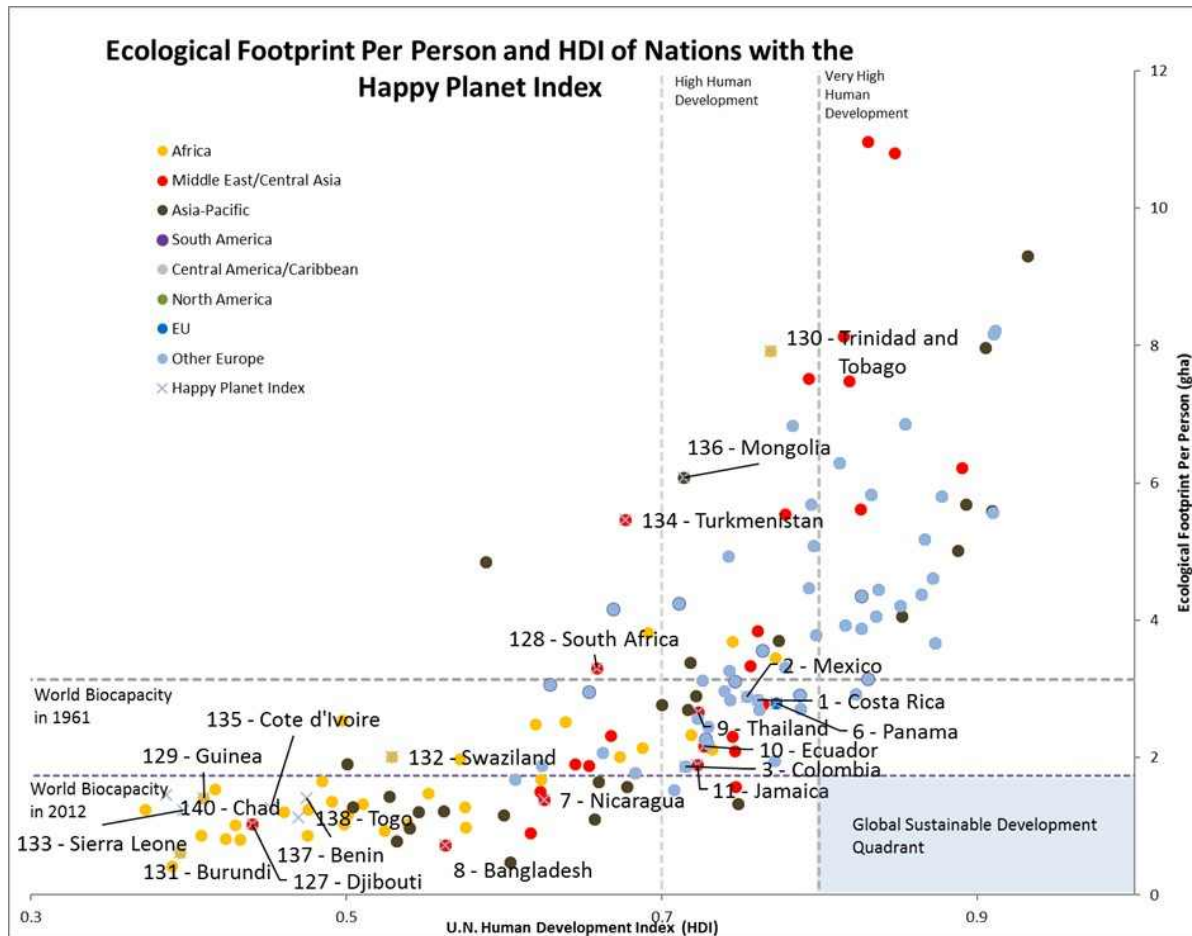
〈참고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발전계획⁵⁾

1. 비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좋은 삶을 연결하고 실천하는 사회

- 더 많은 소유와 소비라는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좋은 삶의 의미를 묻고 지향하고 실천하려는 시민 의식의 확대
- 세월호 사고와 촛불혁명을 통해 돌아난 국가의 역할, 국가와 나(시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주권의식이 확산
- 이제 새로운 ESD 추진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시민들의 좋은 삶을 연결하고 실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



출처: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5) 이 계획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선경, 이재영, 김인호 세 사람에 의해 작성되고 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는 것임

2. 미션

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연결고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엔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연결고리로서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매개해야 하고자 함

연결고리(bridge) 기능

- . 국제 보고서의 번역, 소개
- . 국내 동향과 성과의 번역, 보고
- . 유네스코 학교, 레인보우 프로젝트 등
- . 국제 심포지움 등 개최 및 참석

나. 학교와 지역에서 SDGs 실현을 위한 국내 ESD의 촉매이자 거점

- 동시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모든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쳐 학교 안팎에서 ESD 활동에 참여하고, 좋은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들(제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촉매이자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촉매이자 거점(anchor) 기능

- . 교육부(교육)와 환경부(SD)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다리 역할
- . 프로젝트 인증제 내실화
- . ESD 포럼과 학회 창립 촉진
- . ESD 협력기관 네트워크(국립공원, 에너지 등)
- . 교대·사대학장회의(교원양성 및 연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이 정리되고 그 안에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유네스코의 ESD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지속가능발전법의 하위 내용 중 교육 관련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3. 목표

- 이번 계획의 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2019년까지 단기, 2022년까지 중기, 2025년까지 장기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함

가. ESD 학습 기회의 확대(양적) / ESD for All

- DESD 이전에 비해 SD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와 친숙도는 상당히 개선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ESD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수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임
- 학교는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이 ESD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함

〈평가지표〉 정기적으로 ESD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율
〈목표설정〉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2배 증가

나. ESD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통합성 강화(질적)

- 유네스코한위, 교육부와 환경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 과학창의재단, 환경 NGOs,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많은 ES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프로그램의 통합성과 다양성이 높지 않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 교사와 담당자의 역량 강화, 우수 사례 발굴·소개, 상호학습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해 SDGs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평가지표〉 복수의 SDGs를 추구하는 ESD 프로그램 수
〈목표설정〉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2배 증가

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 주체와 ESD 생태계의 형성

- 국내외적으로 현재의 생태계(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지진 빈발 등)와 사회체계(안보 불안, 지구적 자본질서, 저출산고령화 등)는 복잡성, 불확실성, 비규정성이 높아 경직되고 위계적인 방식으로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시장-시민사회를 묶어내면서 ESD를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기조직적(Self-organizing)인 추진 주체와 ESD 생태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마을과 학교, 지방(local)과 국가, 지역(region)과 국가 차원에서 SDGs 달성하는 데 필요한 유연하고 능동적인 주체 형성을 촉진해야 함

〈평가지표〉 수준별 ESD 추진 주체와 파트너십의 형성 정도
〈목표설정〉 2025년까지 50%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ESD 주체 형성

※ 이 추진주체를 어떤 형태로 설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단 여기에는 지자체, 교육청, 주요 대학, 시민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가져야 함

4. 추진 방향

가. 기존 사업의 평가와 혁신

- 유네스코한위는 지난 10여 년간 ESD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프로젝트 인증제, 콜로키움, 레인보우 프로젝트, 교사 연수, 교육 자료의 발간, 기관 협력, RCE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음
- 각각의 사업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한계와 과제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준거로 평가를 통해 기존의 사업들을 정비해야 함. 예를 들어 ESD 프로젝트 인증제가 대중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가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

나. 문재인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강화

-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00대 정책과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ESD와의 연결고리를 다각도에서 만들어 냄(예, 시민안전권, 환경정책의 지속가능성, 교육정책 방향)
- 최소한 중기적(2022년까지)으로는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다양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SDGs를 결합할수록 정책반영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다. 지역과 마을 중심으로 ESD의 일상화 향상

- SDGs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착되고, 실천의 통합성을 높이려면 앞으로의 ESD는 지역과 마을을 중심에 놓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정부, 대학, 시민사회,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고 중간지원조직을 강화하는 전략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재생전략과 ESD의 결합이 필요함
- 평생학습도시, 아동친화도시, 환경(교육)도시, 슬로우시티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음

라. 시장과 기업의 역할 재평가

- 지금까지 ESD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한 경향이 있음. 지속가능한 삶의 문화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시장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자원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함
- ESD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전통적인 상품시장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영역(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비상품시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 기존의 CSR과 ESD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해야 함

5. 추진전략과 사업

가. 사업 추진 기반 구축

1) 교육부와 환경부의 투톱 체계 구축

- . 중앙정부 차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교육부-환경부 투톱체제 구축
 - 필요한 경우 이를 지속가능발전법에 명시하는 방안 추진
- . 교육부와 환경부에 담당부서 설치 제안
 - 환경부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환경교육팀 설치 예정
- . 폐교를 활용한 ESD 학교 사업 추진

2) SD법의 제정과 ESD 관련 조항 신설

- . 유네스코한위 내의 조직 개편
- .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 과정에 반영

3) ESD 운영위원회의 내실화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교육분과 또는 교육위원회와의 위상 정리
- . 가능하면 기존의 유네스코한위 ESD 위원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나. ESD 연구개발 역량 강화

-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콘텐츠의 생산과 발굴
- . 프로그램과 수업 모델의 개발

1) ESD 포럼 창립

- . 2018년 1/4분기에 포럼 창립 준비모임 결성
- . ESD 포럼의 구성: 환경, 양성평등, 다문화, 민주시민, 인권, 평화 등을 포함
- . 각 분야의 대표 단체나 학회가 모여 포럼을 구성하고 번갈아 사무국을 맡아서 진행
- . 매년 몇 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설정
- .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학회 창립을 위한 준비 진행
- . ESD 필수과목 신설을 위한 이론적 준비, ESD 소식지의 발간

2) ESD 학회 창립 추진

- . 2019년 창립 목표
- . 평생교육학회,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 .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준비모임
- . ESD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다. 학교 ESD 강화 전략

1) ESD를 정규과목으로 신설

- .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환경·지속가능발전’을 묶음
- . 공생력보다는 지나치게 개인의 경쟁력 중심 교육 지양할 시점
- . 환경, 양성평등, 다문화, 민주시민, 인권, 평화 등을 묶어서 필수과목으로 ESD 신설

2) 교원양성대학에서의 ESD 확대

- . 교대·사대학장협의회 정례회 및 역할 강화
- . 팀티칭, 프로젝트 수업 등 실험적인 모델 개발과 적용
- . 교원양성과정에 ESD 과목 이수 필수화(정철 교수팀이 ESD 교양 교재 개발 중)

3) 교사 이해 및 역량 강화

- . ESD 교사 연구회의 지원 강화 및 교류 확대
- . 현직 교사를 위한 ESD 석박사 과정의 신설+ 사이버과정과 결합

4) 학교 ESD 프로젝트 인증제

- . 기존의 ESD 프로젝트 인증제를 학교와 학교밖으로 구분하여 진행
- . 기존의 유네스코 학교나 레인보우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 . 프로젝트 내실화를 위한 ESD 지원단 운영

라. ESD 시범도시와 지역과 마을 중심의 ESD 추진

1) ESD 시범도시

- . 지자체장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 구상
- . 지자체의 기존 사업과 연계: 평생학습도시, 아동친화도시, 슬로우시티 등
- . SDGs 고려: 지자체의 과제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테마

2) 폐교를 ESD 학교로 활용

- . 전국에 약 1300여개의 폐교 존재, 415개의 폐교 미활용 상태
- . 상당수의 폐교가 원도심을 포함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
- . 환경부(시설조성)와 교육부(운영비지원)가 협력하는 폐교 활용사업 추진
- . 평일 낮에는 학교와 연계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로 기능

3) 대학과 지역의 도서관 및 커뮤니티센터(평생학습센터 등) 연계 사업

- .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북카페 설치(테마를 SDGs와 ESD로)
- . 사례: 공릉동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 결합해서 추진: 우리가 사는 마을

마. ESD 교류 및 정보공유 강화

1) 파트너십

- . 국립공원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기관 대 기관 차원의 파트너십 강화
 - 양적 확대에는 기여하였으나 아직 내실화, 전문화는 도달하지 못함
 - 국립공원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과 ESD의 결합
- . 협력기관 네트워크와 공동 사업: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발표 대회 등
- . 교사 및 실무자 네트워크

2) 국제교류

- . 20년의 역사를 가진 한일교사교류회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
- . 해외개발원조 사업과 ESD의 결합: KOICA와의 협력

3) RCE의 비전과 역할 재정립

- . 세계적으로 RCE가 쇠퇴하는 경향이라는 평가가 있음
- . 네트워크 거점이자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체성 재정립
- . 통영, 울주, 인천 등 RCE 네트워크와 협력 사업 추진
 - 예, 인증받은 ESD 프로젝트 관리 및 권역 네트워크 운영

바. 기타

1) ESD 프로젝트 인증제

- . 기존 프로젝트 중에서 우수 모델을 만들어내기
- . 프로젝트 인증의 단계 도입: 일반 인증과 우수 인증(지속성, 차별성, 통합성 등)
- . 인증받은 프로젝트 사례집 발간 및 홍보

2) ESD · 환경교육 역사박물관 / 자료실 설치

- . 현재 추진 중인 환경교육진흥원 산하에 설치
- . 유네스코 자료실에 있는 자료와 문서 폐기 자제 및 별도 보관
- . 환경교육연구실과 연계하여 운영 관리

SDGs를 기회로 학교 교육 혁신하기: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과 교육적 수행

안재정(송내고등학교 교사)

I. 들어가며: 유네스코와 학교의 ESD 바라보기

매년 10월이 되면 국제적으로 시상하는 노벨상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술렁인다. 문학상, 평화상, 과학, 의학, 경제 관련 수상 등 한 나라의 인재 양성의 척도로 많이 인용이 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8일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연구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와 폴 로머 뉴욕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노벨위원회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며, "이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주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긴급한 문제라고 노벨위는 설명했다.

‘지속가능성’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기본이면서 시급하게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유네스코와 학교의 바라보는 관점은 같은 듯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먼저 유네스코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중 교육이 단일 목표(SDG4)인 동시에 SDGs 전체의 달성을 위한 요건임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은 SDG4 뿐만 아니라 SDGs 전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교육의 질’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DG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SDG4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이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7개 성과 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바라보는 ESD는 ‘모든 사람들(학생)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⁶⁾의 의미로 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정의, 의미, 중요성, 필요성 등을 환경, 경제, 사회라는 물리적 영역 구분으로 이를 통합 또는 간학문적으로 융합한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는 SDGs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자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교육으로 치부된다. 둘째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다. 이는 단순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환경, 경제, 사회로 나누고, 합치거나 SDGs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육 이상의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를 넘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국제연대 등 변화의 주체들이 지속가능성을 향한 변화를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역량 증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ESD를 접근함에 있어 이 두 가지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는 같은 듯 다른 점이 존재하며, 이는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남기게 된다.

6) 이선경 외(2005).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연구.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II. 교과중점 교육과정과 ESD

1. 혁신학교, 자유 학년제, 교과중점 교육과정 그리고 고교학점제

본 발제에서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변화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 혁신 학교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

-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학교
- 존중과 배려로 행복한 교실
- 함께 배우며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
- 모두에게 배움이 즐거운 수업

나. 자유 학년제

중학교 과정 1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다. 교과중점 교육과정

특정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로써, 자유수강제의 개념을 적용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 운영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개 학년 또는 2개 학년을 교과(군)의 경계 없이 학생 선택의 범위를 최대화한 학생중심 개별 교육과정이다.

라. 고교 학점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되면, 학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보와 확대를 지향하므로, 학교 여건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4가지의 학교 교육의 변화 형태는 그 출발점을 다르나 도착점은 같다, 즉 학생의 선택권의 강화와 수업 혁신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이다.

2. 송내고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⁷⁾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등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본연의 특성인 개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미래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과 적응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의 해결 프로세스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즉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추고, 공동의 협력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라는 새로운 비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참여와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달성해야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가치, 실재를 교육과 학습의 모든 측면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개인이 인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경제적으로 성장가능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치, 능력,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UNESCO, 2005).

이러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측면에서 도입하기 위해 교육부와 부천시가 추진하는 교과중점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동안 운영되는 사업으로 2018년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러한 교과중점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중점과정, 예술·체육중점과정, 외국어중점과정, 융합교육중점과정 등 교과중점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지금까지 환경교육 또는 ESD 관련 사업으로는 환경보전 시범학교(2016년 종료), ESD 선도학교, ESD 융합교실, 유네스코학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범교과 활동 또는 동아리, 교사연구회 중심의 교과 통합 수업 활동에 머물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시도되는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사업은 학교의 실제적인 운영의 주체인 교과의 집중 과정으로 ESD를 선택했고, 이를 위해 일정한 교과 시수의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 그리고 예산과 물리적 공간의 확보가 갖추어진 교육이 실시되는 점에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7) 안재정(2017). 지속가능발전교육 교과중점 교육과정의 운영과 과제. 2017 한국 환경교육학회 상반기 학술 발표대회 발표 원고를 재구성함.

3. 송내고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의 소개

위와 같은 배경으로 시작된 송내고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의 개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급 편성이다.

학년	학급수(학급)	학급당인원(명)	전체인원(명)
1	5	21.4	107
2	2	25.5	51

송내고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가치를 꿈꾸는 리더 육성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교과중점 교육과정이란

미래 사회 변혁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탐구해 봄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가치를 꿈꾸는 리더를 육성하는 교과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동아리, 진로 특강, 체험 및 대회 경험을 제공하며, 교과중점으로 1학년 과정에서 환경 과목을 통해 친환경적인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학년 과정에서 인문사회, 자연과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위한 사회적, 과학적 방법론을 과제연구 과목을 통해 익혀 나가며, 3학년의 세계문제와 생태와 환경 등의 과목을 통해 미래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 또는 직업과 연계된 과정을 설계해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통합적인 사고 방법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익힘으로써,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 미래 에너지, 융합과학, 환경, 경제, 보건, 생명, 지구적 현상 탐구, 사회 문제 해결, 문화적 다양성, 국제협력 관련 분야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관련된 학과와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구조가 행태를 만든다. 교육과정 편제(2018학년도 입학생 기준)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기본은 교육과정 편제표를 이해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34시간의 주당 시수 중 30시간을 교과 활동 시간에 보내고 있으며, 이를 조직한 편제표는 학교 교육의 현실과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송내고등학교 교과목 편제표〉

교과 영역	교과 (군)	과 목	기준 단위	운영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영역 합계	필수 이수 단위
				공동	일반	진로	전문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8	8				4	4					24	10
		문학	5		4					4					
		독서	5		4						4				
		언어와 매체	5		4							2	2		
		화법과 작문	5		4							4			

	수학	수학	8	8			4	4					24	10	
		수학 I	5		4				4						
		수학 II	5		4					4					
		확률과 통계	5		4					2	2				
		경제 수학/미적분[택1]	5			4						4			
	영어	영어	8	8			4	4					20	10	
		영어 I	5		4				4						
		영어 독해와 작문	5		4						4				
	한국사	영어 II	5		4							4	6	6	
		한국사	6	6			3	3							
	기초 교과 선택	심화 국어	택1	5			4						4	12	-
		실용 국어	택1	5			4						4		
		기하	택1	5			4						4		
		수학과제 탐구	택1	5			4						4		
		영어 회화	택1	5		4							4		
실용 영어		택1	5			4						4			
사회	통합사회		8	7			4	3					7	10	
과학	통합과학		8	7			3	4					9	12	
	과학탐구실험		2	2			1	1							
탐구 교과 선택	윤리와 사상/세계사/세계지리/정치 와 법/경제 / 물리학 I /지구과학 I /생명과학 I /화학 I / 과학과제 연구↔사회과제 연구	택3	5						3	3			36	-	
	한국지리/동아시아사/사회· 문화/생활과 윤리 화학 II /지구과학 II /생명과학 II /물리학 II / 생태와 환경↔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택2	5			6						3			3
	여행지리/사회문제 탐구/생활과 과학/융합과학	택1	5			6						3			3
		택3	5									3			3
체육· 예술	체육		5	4			2	2					12	10	
	운동과 건강		5	4					2	2					
	스포츠 생활		5		4						2	2			
	예술	음악/미술[택1]		5	4			2	2					10	10
		음악 연주/미술 창작[택1]		5		4				2	2				
	음악 감상과 비평/미술감상과 비평[택1]		5		2						1	1			
생활· 교양	기술· 가정/제2외 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정보) / 환경 [택1]	5	6			3	3					20	16	
	중국어 I /일본어 I [택1]	5	6					3	3						
	한문 I /지식 재산 일반/정보과학 [택1]	5			4					2	2				
	민주 시민	5	4							2	2				
학기별 이수단위 소계			-	-	-	-	30	30	30	30	30	30	180	180	

5.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 교과 운영 내용

교과중점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문과목 4개와 이를 지원하는 주문형, 클러스터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교과 영역 교육과정 편제 과목(2018학년도 입학생 기준)

교과(군)	과 목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양	환경	3	3				
국제계열	사회과제연구			3			
과학계열	과학과제연구				3		
과학계열	생태와환경					3	
국제계열	세계문제와미래사회						3

나. 주문형 / 클러스터 개설 현황

[2017학년도]

- 주문형 강좌: 논술, 교육학, 보건, 경제, 심리학, 정보과학, 과제연구(커뮤니티매핑),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 클러스터 강좌: 과제연구(과학: 로봇공학), 일본어회화 I

[2018학년도]

- 주문형 강좌: 교육학, 심리학, 보건, 정보과학, 지구과학1

- 클러스터 강좌: 과제연구(과학: 로봇공학), 프로그래밍, 인류의 미래사회

다. 교과 수업 운영 내용 및 특색

-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술가정-정보 / 환경으로 구분하여 5개 '환경' 선택 학급을 편성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2학년 때부터 사회-과학 융합교육과정으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소양을 환경·경제·사회와 관련되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프로그램으로 운영함.
- 환경부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 사업과 '유네스코 학교' 운영과 관련지어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과 과목 운영의 철학을 반영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과제연구(과학: 로봇 기초), 프로그래밍, 인류의 미래사회 등 클러스터 과목들과 교육학, 심리학, 보건, 정보과학, 지구과학1 등 주문형 강좌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교과 활동 운영 방향을 지속가능 발전과 미래 사회 그리고 다양한 환경 문제의 이해의 측면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 운영함.
- 소논문 작성 경험 / 프로젝트 활동 / 모의 창업 / 봉사 / 국제사회 이해 등 특색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를 등 국내외 환경 및 ESD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활동으로 사회적 기여 및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교과활동 / 비교과 활동을 통한 체계적 준비를 통해 진로 진학에 유리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함.

6.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 비교과 운영 내용

가. ESD 교과중점 프로그램 운영의 4대 방향성

첫째, 메이커(Maker) 활동 지원

‘Maker’란 다양한 기기와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탐구, 실험, 프로젝트, 제작, 스토리 창작, 디자인 등을 학생 활동 중심 문제 해결학습을 지향

둘째, 커뮤니티(공동체) 가치를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공동체를 자연과 생명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요소로 설정하고, 커뮤니티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과 자연이, 학생들과 지역사회, 학생들과 교육이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함께 설계함으로써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을 지향

셋째, 공유와 나눔을 통한 배려

지속 가능한 사회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유와 나눔 그리고 소통의 개념이 적용된 시설과 프로그램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학습을 지향

넷째, 유네스코 학교 운영과 연계

유네스코학교는 4대 주제(유엔의 우선과제,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와 인권, 문화 간 학습)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학교 운영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 인권의 가치관을 지향

나. 비교과 체험활동 운영 내용

비교과 프로그램	교내대회	관련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 프로그램 • 세바시 프로젝트 • 커뮤니티 매핑 • 메이커 활동 • 해커톤 운영 • 캣맘 활동 • 비건 프로젝트 운영 • 미세먼지 프로젝트 • 유네스코 연계 프로젝트 • 공유경제 활동 • 사회적 기업 관련 창업 • ESD Fa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시간 포스터대회 • 사회문제 해결 탐구대회 • 환경포토에세이 대회 • 환경 송 발표 대회 • ESD 모의 창업대회 • ESD 독서 퀴즈대회 • ESD 소논문쓰기 대회 • ESD 프로젝트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시간 1시간 불끄기 행사 • 2018 평창 장애인 올림픽 커뮤니티 매핑 • 중학생 및 마을교육공동체 교육 봉사 • 도서 대출 봉사, 기술 지원(TA), 봉사 • 융합교육부에서 추진하는 ESD 창의적 체험 활동 및 각종 특색 활동 운영 지원 • 텃밭 관리 및 도우미 활동 • 아나바다 나눔 장터 지원, ESD 페어 지원, 커뮤니티 매핑 지원 활동 • 캣맘 활동에 참여 • 비건 프로젝트, 사회문제해결형 소외계층 돕기 등 프로젝트 활동

7.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 우수 사례

가. 꿈꾸는 환경학교 운영을 통한 수업의 혁신

꿈꾸는 환경학교: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은 학교를 ‘꿈꾸는 환경학교’로 지정하여 환경교육 공간 조성, 운영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컨설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1) 운영 내용

- 환경학교 관련 교과 지원(1학년 환경, 2학년 환경과학 및 세계문제)
- 관련 동아리 지원(에코메이트 및 메이커 동아리)
- 환경학교 관련 특강(메이커 활동 관련 특강, 커뮤니티 매핑, 디자인 관련 전문가,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유네스코 및 국제교류, ESD 관련 전문가 등)

2) 환경학교 운영을 통한 수업 혁신

- 환경교실을 기반으로 환경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각종 첨단 기자재(드론, VR, 3D 프린터, 노트북, 각종 탐구 기자재)를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강도 높은 미래 경험을 제공함.



나.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사회 공헌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커뮤니티 매핑이란 참여자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매핑하여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1) 평창 장애인 올림픽 봉사 활동 사례

- 2018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 관련해서 대회에 참가자가 겪는 불편한 시설들을 기록하여 해당 당국에서 빠르게 개선하기를 촉구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
- 참가대상: 송내고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 80명 내외

2) 부천시 장애인 편의 시설 커뮤니티 매핑 봉사 활동 사례

- 구글 임팩트 챌린지와 함께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한 시설들을 기록하여 해당 관계자가 빠르게 개선하기를 촉구하는 봉사 활동
- 참가대상: 송내고 1,2학년 학생 전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실시

3) 환경 교과 시간 인근 시장 장애인 편의 시설 커뮤니티 매핑 활동 사례

- 환경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인근 시장의 장애인 편의 시설 커뮤니티 매핑 활동 운영
- 참가대상: 1학년 환경 수업 수강 학생

4) 2학년 수학여행 제주도 Eco-Voluntourism 봉사 활동 사례

- 2학년 수학여행 기간 중 제주 올레길과 서귀포 시 일대에서 커뮤니티 매핑 및 장애인 접근 시설 매핑을 통한 Eco-Voluntourism 운영
- 1부 제주 올레길 환경 포토존 커뮤니티 매핑, 2부 서귀포 시 장애인 접근 시설 커뮤니티 매핑



다. 학생중심 2학년 중점 과목(환경과학 / 세계문제) 수업 운영



- ESD 교과중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2학년 환경과학(1학기)과 세계문제(2학기) 과목은 3시간 블록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필 고사를 1회 실시하는 대신, 다양한 영역의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과정 중심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수업의 특색으로는 환경과학의 경우 환경과 환경 문제에 대한 과제연구(소논문) 쓰기 활동과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세계문제의 경우 유네스코 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서평, 토론, 발표 등을 실시함.

라. 드론, 3D 프린터, VR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동아리, 교과, 교사 연구회 활동 운영

- 송내고등학교의 꿈꾸는 환경학교를 중심으로 구축된 드론, 3D 프린터, VR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드론의 경우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천시 과학 페스티벌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환경 교과 시간에는 3D 모델링과 프린터를 활용하여 태양광 자동차를 제작 설계하고 있으며, VR의 경우 교육부 교육과정-수업역량 강화 워크숍 참가 교사 연구회로 선정되어 HTC 바이브 기반의 가상 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경험 증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마.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 참여 학생 소감문

송내고 학생 2학년 여00

제가 송내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은 지속 가능발전교육인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생소한 수업과 처음 도입된 과목이라 1학년 초에는 솔직히 무엇을 가르치는 과목인지 잘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환경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접해본 새로운 느낌에 끌린 저는 ESD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2학년 때 저는 일반 이과가 아닌 ESD과를 선택하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D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외부 초청 강사들이 진행한 특강들은 자연의 의미, 구조적 문제로서의 공유지의 비극, 종 다양성, 공생 등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었고 보다 전문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학년 1학기의 ESD 시간에는 환경과학을 수업했는데, 소논문과 토론이 활동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신소재에 관심이 있던 저는 생분해성 비닐봉지에 대해 주제를 잡고 소논문도 작성해보았고, 기술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들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 2학기인 현재는 세계문제 수업을 들으며 환경과학과는 또 다른 가치들을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된 활동인 서평 쓰기와 독서로부터 세계의 여러 문제와 '공감'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 ESD 수업을 두고 선생님께서는 이로운 '가치'를 배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한 번은 환경과학 수업 중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에 대해 말이 나왔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발전이 시간의 가치를 부여 하여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발전만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가치들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친 보편적이고 당연하게도 이로운 것들이라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ESD 수업과 이를 통해 가치를 배우는 일을 다른 학교에서도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활동들은 제 가치관뿐만 아니라 진로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학년 때는 신소재 연구원이라는 꿈이 미래 세대의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환상과 기대 때문이었다면, ESD 교육을 듣고 난 후 현재에는 그런 막연한 멋짐보다는 가치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이 되어서도 저는 인류의 오락이나 편의만을 좇지 않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내고 학생 2학년 황00

지속 가능 발전 교육 (ESD)는 연중 3단위로 1학기는 환경과학, 2학기는 세계문제로 나뉘어 다룬다. '세계문제' 과목의 경우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난민, 아동노동 착취, 공정 무역 등등과 최근 이슈 되는 비트코인, 미국 중국과의 무역관계, 4차 산업 혁명 등등의 다양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배운다. '환경과학' 과목의 경우 과학적인 탐구과정을 VR, AR, 3D프린터로 직접 체험해 보고 기후대기, 물 환경, 생태, 자원순환 등의 자연과 인문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상에 대해 배우며 과학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다. 이 수업들은 대표적으로 세계 문제 토론과 소논문 쓰기 활동들이 있다.

세계문제 토론 시간은 세계적으로 다루는 논점에 대해 조별로 토론을 준비하며 이 논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확립할 수 있고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관람하며 평가표를 작성하여 자신의 토론과 친구들의 토론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성찰 및 비교를 할 수 있다. 또한 교과 선생님도 따로 있기에 제대로 된 규칙을 배우며 수준 높은 토론을 경험해 볼 수 있다. 토론 수업을 통해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스스로의 내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관심이 없었던 분야를 접해보며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소논문 쓰기 활동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 또는 자신이 관심 있었던 분야 내에서의 지속 가능 발전한 부분을 찾아 소논문 주제로 선정하고 ESD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의 지원과 조언을 받으며 진행된다.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해 배우고 관심 있는 분야의 참고문헌과 논문에 대해 찾아보며 배경지식을 쌓고 실험을 진행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어떤 다른 활동보다 기억에 남는다.

생물다양성과 원전, 기후변화 등의 교수 초청 특강과 유네스코 학교로 선정 되면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해 쉽게 얻지 못할 경험과 배움을 얻었다. 이 외에도 서평 쓰기 활동 사회문제 해결 탐구, 환경 포토에세이, ESD 모의 창업 관련 활동들이 있었다.

어떤 진로라도 연계가 가능한 수업과 다양한 활동으로 자소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에 대한 탐구 방법과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자신만의 비전과 다면적인 관점으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의 과제와 질문들⁸⁾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은 그동안의 비교과 중심의 환경교육 또는 ESD가 교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중등 교육이 교과 카르텔로 지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간에 이루어지는 30시간의 교과 시간 중 단 1시간이라도 양보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보통 1시간의 교과 시간이 전국적으로 1000명의 교사 정원을 좌우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과 같이 ESD 교육과정이 비록 1개교에 불과하지만 4과목 12단위(1학년 공통 과정 까지 포함하면 18단위)의 시수를 확보 했다는 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이례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교과중점 교육과정과 환경부의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이 학교 전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상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좋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에 대한 논의, 방법과 내용의 조율 등 수많은 과제와 도전이 있다. 추후 이상적인 교육의 현실 반영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관련 분야의 발전의 척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앞서 학교 내에서 기본적으로 선행 되어야될 두 가지 장벽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행정적 지원이다. 현재 운영교는 교육과정 자율화 학교와 혁신학교로써, 다양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시작되는 부천시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비와 경기도 교과중점 사업비,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공모를 통해 교사들의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책을 스스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협업 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부서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일의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학교의 방향을 교직원들이 공감하고 함께 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운영교 구성원들의 친화력과 공동체 의식을 운영교가 나아가야 될 교육의 방향에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 경영 전략을 구현함에 있어,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2018년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과 꿈꾸는 환경학교 사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평가(교원능력개발

8) 안재정(2017). 지속가능발전교육 교과중점 교육과정의 운영과 과제. 2017 한국 환경교육학회 상반기 학술 발표대회 발표 원고를 재구성함.

평가와 꿈꾸는 환경학교 만족도 조사 등)를 받아보며, 다음과 같은 과제와 질문들을 가져본다.

첫째, 교육의 대상에 대한 고민이다. 환경교육과 ESD는 다수를 위한 교육이어야 되는가? 지금처럼 소수를 위한 교육이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가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험이 있었던가? 우수한 소수가 만들어낸 성과에 치중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본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가치와 철학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서 우리 사회는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던가? 겨울철 구세군 냄비와 유니세프와 같은 기아, 난민 문제 등의 심각성과 동참을 알리는 많은 대중 참여가 일반인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을 지켜보며, 어느 정도의 대상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둘째,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교육(현실적인 입시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학교 현실에서 환경교육이나 ESD와 같이 하면 좋은 교육은 어떻게 그 위상을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교사들인 아직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교육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교육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학교 자체의 자정과 내부 동력으로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자로서 외부에서 광풍이 불어도 내부에서는 미풍조차 두려워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뭉친 학교 구성원들이 갖는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은 가끔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와 학교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반드시 물을 것이며, 이를 답하지 못하면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질문과 과제에 대해 1977년 트빌리시 선언 이후 우리 사회가 지난 40여년간 준비해온 대안인 환경교육과 ESD가 대안으로써 우리 교육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넘어 해야 되는 교육, 그리고 하고 싶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 1996년 환경교육과 설립으로 학교에 환경교육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는 시점, 2014년에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훌쩍 지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고, 계속적인 도전과 평가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다. 가능성과 한계점 중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성공과 실패의 저울질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과 꿈꾸는 환경학교도 그 저울 위에 올랐다. 우리 교육의 욕망으로 만든 불사신인 입시 과목과 나만 아니면 된다는 허상에 사로잡힌 괴물 속에서 환경교육과 ESD는 아킬레스 건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짧지만 굵은 여정에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 너무 늦지 않게 아킬레스 건을 찾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노력들이 준비에 실패해서, 실패를 준비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에 본 발제를 마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마치고 싶다.

- ▶ ESD는 학교 교육에서 해야 되는 교육인가? 하면 좋은 교육인가?
- ▶ ESD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준비하는 교육인가?
- ▶ ESD는 소수를 위한 교육과 다수를 위한 교육인가?
- ▶ 유네스코가 생각하는 ESD와 학교가 생각하는 ESD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 ESD가 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 ▶ 할 수 있는 교육에서 하고 싶은 교육으로 전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 ESD는 빨리 가려하는가? 멀리 가려하는가?

SDGs 이행을 위한 지역 단위의 ESD 리더 양성 전략⁹⁾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교수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나뉘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은 지속가능발전 개념 자체에 대한 교육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과 관련한 역사적 흐름을 일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의 추세를 설명하는 교육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관점과 행동의 전환에 기여하는 교육으로서, 교육 프로그램 자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이 견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20년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사를 볼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사업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전달하면서도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어떻게 견지할 수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표 1>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년사를 정리하면서 지방의제21 추진과정 2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지방 지속가능발전으로서의 20년 비전을 수립할 때 제시된 8대 분야 의제와 주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의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담을 내용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의제와 주요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지역자립경제	지역 에너지 자립기반, 식량 자립을 위한 계획과 능력, 공동체의 자립적 경제능력 등
녹색지역경제	협동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활성화, 자원순환 경제, 안전하고 즐거운 일자리, 재래시장과 골목경제의 지속성
이웃관계	이웃과의 소통과 연대감, 좋은 이웃관계, 좋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형평성	세대내(양성평등, 차별해소, 약자배려), 세대간(미래세대 배려와 참여확대), 지역간(낙후지역배려) 형평성
생태적건강	생물서식지를 고려한 인간 정주, 생물 다양성 존중 활동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생활양식 확산, 기후변화 적응 위한 계획과 활동
공동체문화	향토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보존, 교육과 전승 활동, 공동체문화의 확산, 공유하는 공동체의 가치 존중
민주주의역량	주민 자치역량과 협치활동 활성화, 민주시민 교육, 민주주의 문화 확대

자료: 오수길 · 이창언(2013: 457).

9) 이 글은 환경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SDGs 이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2018. 7)의 내용 일부를 수정, 요약한 것임.

〈그림 1〉이 보여주는 한국 지방의제21의 새로운 비전체계도 역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인 지향점과 목표, 원칙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 오수길 · 이창언(2013: 460).

〈그림 1〉 한국 지방의제21의 새로운 비전체계도

〈표 2〉는 이들 사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라는 비전의 8대 분야로 구분해 본 것이다. 가령 지역자립경제 분야 의제로는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역량강화교육’과 같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녹색지역경제 분야 의제로는 ‘도시 생태농업네트워크 토론회’와 같은 사업들도 진행된다. 이웃관계 분야 의제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탐방’과 같은 사업이 있고, 생태적 건강 분야 의제로는 ‘바이오블리츠 모니터링’과 같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 8대 분야별 지속협의 사업 분류

사업 유형	사업 수	비율
지역자립경제	168	4.0%
녹색지역경제	324	7.8%
이웃관계	198	4.7%
공동체형평성	593	14.2%
생태적 건강	802	19.2%
기후변화대응	1379	33.0%
공동체문화	330	7.9%
민주주의 역량	386	9.2%
합계	4180	100%

자료: 환경부(2016).

사업 추진의 형식을 보더라도 간담회나 공청회 또는 세미나나 토론회, 워크숍, 강연, 견학, 경진대회, 공모전, 교육, 연구조사, 대회나 행사 또는 캠페인, 모니터링이나 평가, 각종 자료 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대회나 행사 또는 캠페인 등의 실천사업이 1,388건(32.6%), 이들 형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902건(21.2%)이다.

〈표 3〉 사업 수행 형식별 지속협의 사업 분류

사업 유형	사업 수	비율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482	11.3%
워크숍	100	2.3%
강연	16	0.4%
견학	19	0.4%
경진대회	43	1.0%
공모	169	4.0%
교육	406	9.5%
연구조사	31	0.7%
대회, 행사, 캠페인	1388	32.6%
모니터링, 평가	432	10.1%
자료 발간	275	6.5%
복합 추진	902	21.2%
합계	4263	100%

자료: 환경부(2016).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은 〈표 4〉와 같이 대상별로 설계될 수 있으며, 〈표 5〉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기구들의 사업과 유엔 SDGs와의 연계성 검토를 통해 유엔 SDGs의 각 목표와 연계해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평생학습과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사업은 유엔 SDGs 4번 목표로, 생태 교육 등의 전문 교육은 15번 목표로, 교육 관련 한마당과 같은 행사는 17번 목표로 포함시켜 구분할 수 있다.

〈표 4〉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대상과 내용

대 상		내 용	비 고
공무원 교육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추진 역량 강화	교육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무원의 교육 커리어 관리
시민 교육	시민단체	지속협 참여와 모니터링 역할에 초점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일반시민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실천 중심	시민단체들을 통한 확산 교육 지원
기업 교육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거버넌스 참여	기업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기획
공동 교육		거버넌스의 이해와 참여	지속협에서 실시

〈표 5〉 유엔 SDGs 목표 구분과 연계를 위한 주요 내용

구분	목표	주요 내용 (키워드)
Goal 1. 빈곤퇴치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기아
Goal 2. 식량/농업	2. 기아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개선의 달성 및 지속가능 농업 강화	농업, 텃밭, 로컬푸드, 유기농, 도농연계, 직거래, (도시)농부
Goal 3. 건강/웰빙	3. 건강 및 웰빙	건강, 초록밥상, 급식, 먹(을)거리, 식품, 아토피, 교통사고, 환경성질환
Goal 4. 교육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평생학습,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환경교육
Goal 5. 성평등	5. 성평등 달성 그리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성평등, 성인지적 관점, 성 주류화, 여성 참여, 보육
Goal 6. 물	6.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에 대한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	위생, 수질, 물 관리, 물 절약, 맑은 물, 하천, 물 살리기 물순환, 물 소비량, 빗물
Goal 7. 에너지	7.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 지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	에너지, 태양광, 햇빛발전,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적정기술
Goal 8. 일자리와 경제 성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일자리, 임금, 고용, 노동
Goal 9. 산업화/혁신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지역경제, 지역산업,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협동조합, 생태관광, 공유경제, 공정무역
Goal 10. 불평등 해소	10. 불평등 해소	불평등, 차별, 다문화, 이주민,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인권
Goal 11. 도시/공간	11. 지속가능도시	교통/보행/자전거, 문화, 역사, 대기(질), 녹지/옥상녹화, 도시숲/학교숲, 천연가스 버스,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공동체, 재난/안전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폐기물, 쓰레기, 자원순환, 재활용,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녹색구매, 유해화학물질
Goal 13. 기후변화대응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	기후변화대응, 그린리더, 탄소포인트제, 기후학교, 지구의날, 차없는날
Goal 14. 해양생태/자원	14. 해양 생태계	해양/해안/연안/하구/바다, 어족자원, 수산업
Goal 15. 육상생태/자원	15. 육상 생태계	생물, 생태계, 서식지, 종자,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철새/조류, 산림/습지/산, 생태축, 생태교육
Goal 16. 정의/제도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정의, 평화, 제도/조례, 폭력/학대/뇌물, 주민참여, 주민자치
Goal 17. 파트너십	17.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 정책, 파트너십, 민관협력, 지표, 평가, 생태발자국, 의제 작성, 실천, 연수, 환경의날

자료: 환경부(2016).

2. 주요 지속가능발전교육

1) 지속가능발전대학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에 맞춰 평택시, 안동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 등에서는 ‘지속가능발전대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발전대학의 추진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지향과 목표의 공유
- 시민사회, 기업, 행정, 지역 대학의 거버넌스, 파트너링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지표개발 능력 배양
-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등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인재 발굴
- SDGs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평택 도시 디자인

교육과정은 3개월간에 걸쳐 매주 1회씩 11강을 개설한다. 교육 대상은 시민, 공직자, 지방의원,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육자, 마을 활동가 등으로 삼고 있고, 선착순으로 50인을 모집하며, 참가비도 있다. 교육 후원은 지역 대학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교육 방법은 강의, 팀별 워크숍, 토론 및 평가, 선진지 견학 등으로 이뤄진다. 주요 교육 일정과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각 목표별로 강의를 구성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의 교육일정과 내용(2017년 제2회의 경우)

일 시	구분	강 의
7월13일(목) 오후 7:00~8:00	개강	■ 개강식 - 등록 - 인사말(손의영 회장) - 입학사(윤일진 학장) - 축사(공재광 시장, 김윤태 시의장) - 격려사(이필재 평택대총장, 임영철 평택학연구소장, 1기 지속대학 대표 등) - 특강(윤일진 학장) 및 오리엔테이션
오후 8:10~9:30	1강	【 SDGs 1~17 】 SDGs 다가서기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거버넌스)
7월20일(목) 오후 7:00~8:30	2강	【 SDGs 1, 3, 10 】 빈곤종식, 보건 및 웰빙증식, 불평등 감소 빈곤과 불평등 넘어서기
오후 8:40~9:30	워크숍	
8월10일(목) 오후 7:00~8:30	3강	【 SDGs 2 】 지속가능한 농업 먹을거리 위기의 시대, 대안 찾기
오후 8:40~9:30	워크숍	
8월17일(목) 오후 7:00~8:30	4강	【 SDGs 13 】 기후변화대응 지구의 위기 극복하기
오후 8:40~9:30	워크숍	
8월24일(목) 오후 7:00~8:30	5강	【 SDGs 5 】 양성평등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기
오후 8:40~9:30	워크숍	
8월31일(목) 오후 7:00~8:30	6강	【 SDGs 6, 7, 14 】 깨끗한 물, 해양생태계, 녹색에너지 내뿜고 지구살리기
오후 8:40~9:30	워크숍	

9월7일(목) 오후 7:00~8:30	7강	【 SDGs 4 】 양질의 교육 백년지대계, 교육 바로 세우기
오후 8:40~9:30	워크숍	
9월14일(목) 09:00~17:00	8강	【 선진지탐방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탐방 (청주도시재생센터 및 구.연초제조창 등)
		【 SDGs 8, 9 】 경제성장촉진일자리증진, 인프라시설구축산업화와 혁신증진 지속가능한 마을 경제 만들기
9월21일(목) 오후 7:00~8:30	9강	【 SDGs 11, 16, 17 】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거버넌스 사례 토크하기 (서울시, 전주시, 수원시, 부평구, 성북구, 평택시 등)
오후 8:40~9:30	워크숍	
10월12일(목) 오후 7:00~8:30	10강	【 SDGs 11 】 UN 도시의제의 지역적 실행
오후 8:40~9:30	워크숍	
10월12일(목) ※일정변경가능	11강	종강 및 졸업식

2) 시민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 초점에 따라 시민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건강한 먹을거리 시민교육을 수행한다. 주관은 바른밥상 문화원이 후원은 화성시가 하고 있으며, 2개월 동안 매주 1회씩 진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 일정은 <표 7>과 같다.

<표 7>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강할 먹을거리 시민교육 내용

일 시		내 용	
4.5	1강	개강식 - ICE Breaking	
		지속가능발전과 바른먹을거리	
		건강, 배려,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민교육	
	2강	우리 동네 생물다양성 이야기	
4.12	3강	같이의 가치 삶	
	4강	안전한 먹거리, 그 너머의 의미	
4.19	5강	선진지 연수 [만소당]	된장 만들기 (장 가르기)
	6강		건달산 생태체험 발효의 미학-식초의 탄생
4.26	7강	우리 아이들 밥상 위 안심 먹을거리	
	8강	고추장 만들기와 요리	
5.3	9강	유용한 미생물 EM -친환경 EM 생활용품 만들기	
	10강	수료식	

3) 주요 사업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영역별 분과 또는 위원회로 구성하여 연간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위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성 요소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령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행동21위원회, 생물다양성 위원회, 녹색사회경제위원회, 마을의제위원회, 삶의질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회는 의제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주요지표를 통해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표 8>은 2017년 각 위원회별 의제목표와 주요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별 의제목표와 주요 사업(2017년)

위원회	의제목표	주요 사업
기후행동21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시민양성 저탄소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커뮤니티 분야별 기후행동 파트너십 구축과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행동의제 모니터링 기후에너지 정책 확산사업 기후행동 커뮤니티 지원 사업 네트워크 협력사업
생물다양성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알린다. 경기도의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실천 활동을 한다.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 및 제도화에 기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경기도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생물다양성 거점과 모니터링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도시농업 교육 현황 모니터링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이슈 포럼 녹색사회경제의제 모니터링
마을의제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마을의제 작성 다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의 공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지역 마을의제 작성 현황 측정과 마을의제 역량강화 경기지역 마을활동가 간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삶의질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삶의 공간 만들기 목표 자발적 참여와 참여의 기회보장을 통한 시민의식과 시민역량 강화 목표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평등하고 행복한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비정규 노동자 정책 토론회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학교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엄 경기도 성평등SDGs 지표 모니터링

4)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사례¹⁰⁾

(1) 사례의 개요

도봉구는 서울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원선과 연결되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4호선, 수도권 외곽으로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 등 서울과 경기 북부를 이어주는 관문 지역이다. 도봉구가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라는 사실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현재의 도봉동 6-5 일원을 탱크 진입로로 활용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후 1969년 유사시 북한군의 서울 진입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이 지역에 대전차방호시설 5개 동이 설치되었다. 또한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차방호시설 위 2층부터 4층에 군인 등 관련자가 거주할 수 있는 ‘시민아파트’가 세워졌다. 그런데 시민아파트는 건축된 지 20년이 넘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부실해짐에 따라 2004년 1월 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았다. 그 결과 2층부터 4층까지의 시민아파트는 철거되었고, 1층 대전차방호시설만 남게 되었다. 이 지역은 당시로서는 도봉구 내에서도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이었다. 만약 도봉구가 서울 중심부였다면 대전차방호시설이더라도 개발 욕구에 밀려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도봉구로서는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군사시설로서 역사적 공간으로 존치시키게 되었다.

존치된 대전차방호시설은 12년 동안 방치되는 꼴이 되자 지역 내에서는 거대한 흉물이 되고 말았고, 슬럼화 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치안을 저해하기도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매번 문제제기를 했지만, 구청에서는 국방부 시설물에 대해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그러다가 2014년 7월 5일 구청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구청장과 구청 역시 이 시설물을 유용한 공공시설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 왔으나, 행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구청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하고,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시민추진단’을 결성되기에 이른다.

시민추진단은 문화예술 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에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동북권은 문화와 예술 거점 시설이 그리 많지 않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는 접근성 측면에서 열악한 편이었던 것이다.

시민추진단은 구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대전차방호시설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일상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그리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2017년 10월 31일 대전차방호시설은 연면적 1902㎡에 지상 1층, 전체 5개 동의 ‘평화문화진지’로 리모델링되어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2) 사례의 특징과 과정

이 사례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7: 364). 첫째,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로 현안 문제를 의제로 제시하고, 민·관·학·군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했다는 것이다. 둘째, 전쟁을 위한 군용시설을 부수거나 철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실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것이다. 셋째, 선 사업 제안, 후 예산 반영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는 것이다. 넷째, 외교부, 통일부, 주독대사관 등과 연계한 국제적 협치를 실현했다는 것이다.

도봉구는 201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10) 이 사례는 오수길(2018)을 요약한 것임.

운영하는 한편, 2016년 8월 과단위 전담부서로서 전국 최초의 ‘지속가능발전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7년 7월 7일에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두가 살고 싶은 도봉’이라는 비전 체계 아래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수립하였다. 도봉구는 지속가능발전팀을 만들고, 개별 부서를 넘는 협력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가능발전 행정체제를 지향해 왔다. 실제로 평화문화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 여러 부서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도봉구 내에서도 문화체육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부서들이 협력했기에 가능했다. 지속가능발전과가 부서 간 협력, 그리고 행정 외부와의 소통에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이 공간재생사업을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로 승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사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1) 사회-환경-경제 관련짓기¹¹⁾

참가자들이 주사위를 굴리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사회-환경-경제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드는 게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3개 영역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고, 참가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익숙해지는 데 효과적이다. 활동단위는 4-36명이고, 20-30분이 소요된다. 준비물은 서로 다른 색깔의 주사위 3개와 ‘사회-환경-경제 관련짓기’ 활동지를 참가자별로 하나씩 준비한다.

참가자가 파트너와 함께 앉아 빨간색, 녹색, 파란색 3개의 주사위를 던져 숫자를 확인한다. 빨간 주사위는 사회 영역, 녹색 주사위는 환경 영역, 파란 주사위는 경제 영역을 의미한다. 각 영역은 활동지에 적힌 것처럼 6개의 단어를 포함하는데, 각각의 번호는 주사위의 숫자와 같다(활동지 예시 참조).

파트너 중 한 명이 주사위를 굴리고, 파트너들은 1-2분 간의 토론 시간을 가진 후, 주사위가 지시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세 개의 단어를 주요어로 하는 한두 개의 문장을 만든다. 단어들 간의 순서는 상관없다. 그 파트너가 연결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문장 만들기 활동은 그들의 왼편에 있는 모둠에게로 넘어간다. 문장이 만들어지거나 옆 팀으로 과제가 넘어갈 때까지 게임을 계속한다. 매회 만들어진 문장에 대해 토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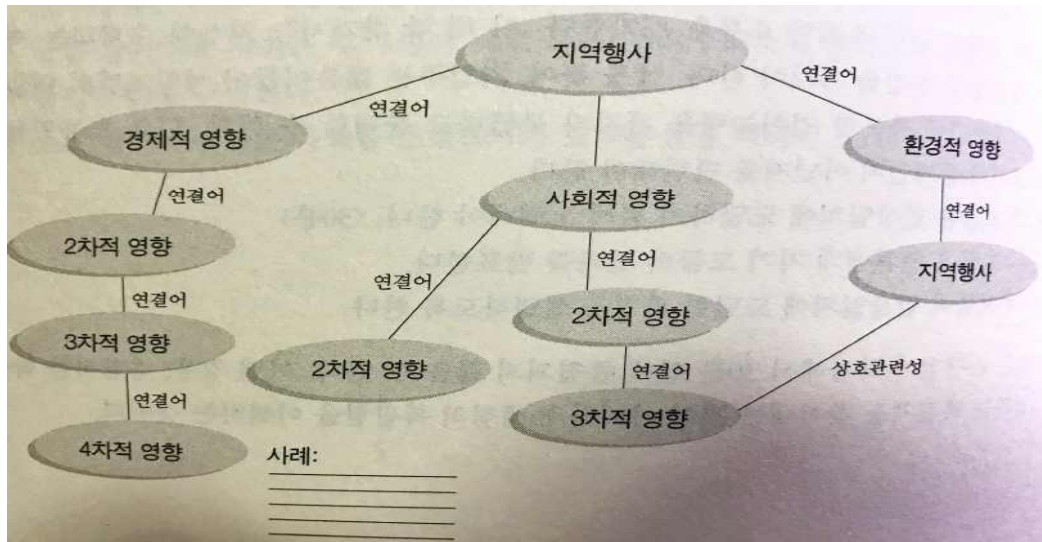
사회	환경	경제
1. 환경보호	1. 물	1. 식량/섬유
2. 주택	2. 공기	2. 사업/산업
3. 의료 혜택	3. 토지이용/토양	3. 지역 경제
4. 빈곤	4. 쓰레기	4. 지구 경제
5. 문화	5. 오염	5. 일자리/생계
6. 정치	6. 서식지	6. 시장

11) 최순호 편(2008: 114-115)

2) 지속가능성의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생각하기

(1) 지속가능성의 시각으로 지역사회 바라보기¹²⁾

참가자가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지역 내 활동의 영향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참가자가 지속가능성의 3가지 구성 요소에 관한 안목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모둠당 3명씩 참가자를 나누고, 각 모둠은 지역의 연중행사를 알아본다(예: 축제, 퍼레이드, 운동경기 등). 전지의 중앙에 행사를 적고, 개념도를 만든다. 참가자들에게 그 활동이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참가자는 1차적 요소들을 적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선을 긋고 연결어를 기입한다.



〈그림 2〉 지속가능성의 구성 요소로 지역 내 활동 바라보기 예시 / 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8: 120).

(2) 지속가능한 미래 구상하기¹³⁾

참가자가 지속가능성 원칙을 활용해서 자기 지역사회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참가자를 무작위로 3개 모둠으로 나누고, 각 모둠은 조각 더미에서 한 개의 지속가능성 조각을 고른다. 모듬원은 지속가능성 조각을 읽고, 주어진 지속가능성의 원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각 모듬원은 지속가능성 원칙이 지역사회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법과 집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생각해야 한다. 각 모듬에서 한 명은 그 문장을 받아 적도록 한다. 모듬장에게 팀이 정한 지속가능성 원칙을 발표하게 하고, 더 큰 모듬에게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보고하게 한다.

(3)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목표 만들기: 주요 목표 선정¹⁴⁾

지역사회가 사회, 환경, 경제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개발하게 하는 것으로, 집단의 목표를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대중 참여 활동은 지역사회가 이미 지속가능성 목표를 만들기로 결정한 뒤에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의 참여 과정은 우선 그들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만들 준비가 될 지점으로 지역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 활동의 설문지 부분은 지역 주민과 지역기업인들에게 배포될 수 있다. 설문지 회수 시 자료 분석을 위해

12) 최순호 편(2008: 120-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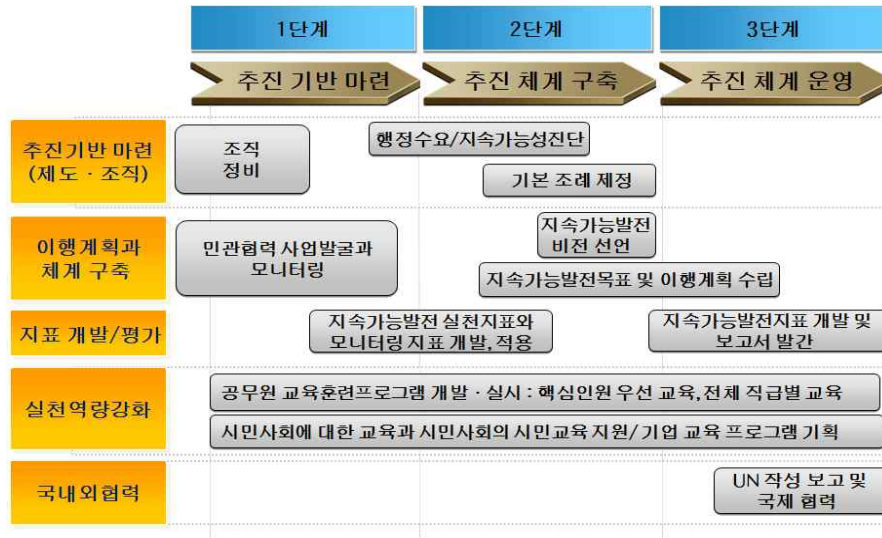
13) 최순호 편(2008: 120-130)

14) 최순호 편(2008: 120-130)

인적사항을 병기하도록 한다.

(4)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¹⁵⁾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로드맵을 <그림 2>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그림 2>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로드맵

4.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방안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의 재정향(reorientation)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을 가진 시민과 공무원을 증가시켜 인식변화와 실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호창, 2018: 24). 이러한 관점에서 SDGs 이행교육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의 중요성과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평가에 대한 이해까지를 포괄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기초-심화-전문 과정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계를 고려하며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UNESCO(2012)는 아래와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육 영역의 지향점으로서 주제 교육 (Adjectival Education) 목록을 제시하였다(장호창, 2018: 42).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경우 세계시민교육으로, 공무원의 경우 정책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다.

15) 시흥시·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2016: 69)

안전교육, 흡연교육, 비폭력교육, 생물다양성교육, 인성교육, 시민교육,
 공동체 연구, 컴퓨터연구, 갈등해결교육, 절약교육, 소비자교육, 산학협동교육
 약물오남용예방교육, 개발교육, 재해예방교육, 지진교육, 경제교육, 국제이해교육
 에너지교육, 기업가정신교육, 환경교육, 평등교육, 체험교육, 가족연구, 미래교육
 젠더교육, 국제교육, 문화유산교육, 에이지교육, 홀로코스트교육, 인권교육
 원주민교육, 국제연구, 리더십교육, 생활기술교육, 미디어교육, 다문화교육
 자연연구, 영양교육, 야외교육, 평화교육, 연구경작문화교육, 인구교육, 재활용교육
 종교교육, 자기연상교육, 성교육, 체계적 사고 교육, 쓰나미교육, 가치교육,
 직업교육, 물교육, 여성교육, 작업공간교육, 세계연구

2)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역량

UNESCO(2017: 10)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SDGs의 달성에 관련된 범분야 지속가능성 핵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표 9〉 참조).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설계해야 할 것이다.

〈표 9〉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역량 / 자료: UNESCO(2017: 10).

핵심 역량	내용
시스템 사고 역량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다른 영역과 규모에 안착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며,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예측 역량	가능하고 개연성이 있으며 바람직한 다양한 미래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미래를 위한 자신의 비전을 창출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고,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며, 위험과 변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규범적 역량	행동의 근간에 있는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고 성찰하며, 이해관계의 갈등과 상충관계, 불확실한 지식과 모순이라는 맥락에서 지속가능성 가치, 원칙, 목표, 세부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
전략적 역량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진척시키는 혁신적인 활동을 집합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하는 능력
협력 역량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 관점,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며(감정이입),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며(감정이입적 리더십), 집단에서의 갈등을 처리하고,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역량	규범, 실천,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가치, 인지, 행동을 성찰하며, 지속가능성 담론에서 입장을 갖는 능력
자아인식 역량	지역 공동체와 (글로벌)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루는 능력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	복잡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상이한 문제해결 틀을 적용하고, 위에서 언급한 능력을 통합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장려하는 생생하고 포용적이며 공평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포괄적 능력

3) SDGs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1) 지속가능발전의 관점과 가치

지속가능발전과 SDGs를 이해하고 수업설계에 반영하려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장호창, 2018: 50). 지속가능발전은 지구, 자연, 인간, 사회 등에 대한 여러 관점 중에서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SDGs는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인간(People),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5개의 축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 환경보호와 인류 발전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환경, 사회, 경제의 통합과 균형이 필요하다.
- 협력은 혼자 할 때보다 성취할 수 있다.
- 사회적 문제는 과거, 미래와 같이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 현재의 지구적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시스템적 사고와 전체적 사고가 문제해결에 필요하다.
- 인간은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는 가족이다.
- 지역의 문제는 지구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 개인적 소비 행동은 먼 지역의 자원 채취와 물건 생산에 영향을 준다.
-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 다양한 시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가치들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흥미와 배경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 과학기술은 혼자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개인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이기도 하다.
- 공동체는 수입, 민족, 지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 공동체와 정부의 의사결정은 공공의 참여로 이뤄져야 하고,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결정에 참여를 이끄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 투명성과 책임감은 정부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다.
- 정부 의사결정의 분권은 사람들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도록 해준다.
- 사전예방 원칙(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혹은 사회적 위험, 특히 과학적 지식이 불완전하거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피하는 행동)의 채택은 공동체와 우리 행성의 오랜 기간 동안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이다.

(2) 정책과 사업의 검토 또는 SDGs 수립을 위한 관점과 가치

지속가능성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거나 SDGs의 각 목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Gladwin et al.(1995)이 내용분석을 통해 기존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도출한 것이다(〈표 10〉 참조).

<표 11>은 이러한 요소에 맞춰 정책과 사업을 검토할 체크리스트 예시를 보여준다.

<표 10> 지속가능성의 구성 요소와 내용

구성 요소	내용
포괄성 (inclusiveness)	시간적으로 미래세대를 고려하며, 공간적으로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특성
연계성 (connectivity)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이 연계되어 있어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특성
형평성 (equity)	세대 간, 세대 내, 생물종 간의 형평, 공정, 정의가 유지되도록 하며, 최소한 비용의 전가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특성
신중성 (prudence)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비선형적 상호관계, 알 수 없는 한계, 복잡한 생태·사회시스템의 역동성 등에 대응하는 기술적, 과학적, 정치적 관리와 예방에 대한 요구
안전성 (security)	현재와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로, 생태 및 사회시스템의 건강성과 중요한 자연자원의 감소, 생존 시스템의 용량, 인간의 권리와 자유 등이 감소하지 않을 요구

<표 11> 지속가능성의 구성 / 자료: 오수길·김은경(2014: 379).

지속가능성 구성 요소	검토 내용
포괄성	1. 지역 자연자원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의 자원기반을 보존하는가?
	2. 지역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는가?
	3.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저감을 촉진하는가?
	4. 물을 적게 소비하고 하수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5.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는가?
	6. 하천, 지하수, 해양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가?
연계성	7.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가?
	8. 기존 농어촌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9. 사회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진행되는가?
	10. 지역의 교통통신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11. 지역의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12.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가?
형평성	13. 소득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가?
	14.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15. 활동적이며 참여적인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16. 공공서비스 수혜나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17. 보건과 건강의 불평등을 저감시키는가?
	18. 지역의 교육 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가?
신중성	19. 지역의 빈곤해소에 기여하는가?
	20.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가?
	21. 지역 환경용량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가?
	22.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가?
	23. 지역에서 친환경제품 사용을 촉진하는가?
	24. 에너지의 효율성과 안보를 확보하는가?

안전성	25. 지역사회 복지증진 강화에 기여하는가?
	26. 지역의 인구추이와 구성 측면에서 지역의 부양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27. 지역 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28. 지역공동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가?
	29. 인간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 인위적, 자연적 재해에 충분히 대응하는가?
	30. 공공환경의 안전성과 어메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요소와 검토 내용

(3) SDGs 수립과 이행을 위한 논의의 틀

MGoS(Major Groups & other Stakeholders) 관점에서 SDGs 17개 목표와 이행전략을 도출해 볼 수 있다. 5P축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17개 목표와 이행전략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5P축에는 17개 목표가 반드시 배타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목표는 중복하여 배분할 수 있다.

UNESCO(2017)는 SDGs를 위한 학습 목적을 세 가지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다. 인지 영역(cognitive domain)은 SDG와 그것을 달성하는 데서 직면하는 도전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사고 기법으로 구성된다. 사회-정서 영역(socio-emotional domain)은 SDG뿐만 아니라 자기성찰 기술, 가치, 태도, 학습자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상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기술을 포함한다. 행동 영역(behavioural domain)은 행동 역량을 말한다. SDGs 각 목표별로 이들 영역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표 12〉 참조).

〈표 12〉 SDGs 학습 목적(예시: 1번 목표) / 자료: UNESCO(2017: 12).

학습 영역	내용
인지 영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극단적,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근저가 되는 문화적, 규범적 전제와 실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극단적 빈곤과 극단적 부의 지방, 국가, 글로벌 차원의 분포를 알 수 있다. 3. 자원과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 식민화, 갈등, 자연재해와 기타 기후변화, 환경악화, 기술재해, 사회적 보호장치와 척도의 부족으로 인한 재난과 같은 빈곤의 원인과 영향을 알 수 있다. 4. 극단적인 빈곤과 부가 기본적인 인권과 필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5. 빈곤을 다루는 데 결핍 기반, 강점 기반의 빈곤 감소 전략 및 척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정서 영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에서 권력과 자원 분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인과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2. 극단적인 빈곤과 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결책에 대한 대화를 장려한다. 3. 빈곤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빈곤층과 취약층에 대한 감정이입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 4. 빈곤과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과 편견을 확인할 수 있다. 5. 전 지구적인 불평등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자신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행동 영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고 평가하고 반복할 수 있다. 2. 사회적 경제적 정의, 위험 감소 전략, 빈곤 근절 행동을 장려하는 정책의 개발과 통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지지할 수 있다. 3. 빈곤 창출과 근절에 관련된 지방, 국가, 국제적 기업의 관리 전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평가하고 참여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소비 행동에서 빈곤 감소, 사회정의, 반부패를 포함할 수 있다. 5. 빈곤과 관련된 시스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4) SDGs 이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표준(안)

	강의일정	교재
학습일정 및 강의교재	A유형: 4회차 (각 2-3시간) B유형: 8회차 (각 2-3시간) (현장방문 포함시 각 1, 2회차 추가)	자체제작 교재 또는 유엔 SDGs 리스트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의와 내용을 이해한다. ○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영역을 확인하고 SDGs와 연계해 본다.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SDGs를 수립해 본다. 	
강의개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수립되어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용한 틀이 정립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의의와 SDGs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학습방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워크숍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장체험 <input type="checkbox"/> 기타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A유형 1회차, B유형 1-5회차) : 지속가능발전의 의의와 역사, SDGs의 구조와 활용,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모범 사례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기후변화나 물질 순환과 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일자리나 산업혁신과 같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동향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추가할 수 있다(B유형). ○ 토론과 워크숍(A유형 2-4회차, B유형 6-8회차) : 그룹별 토론 방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발표 내용을 수렴, 조정하여 지역 SDGs를 수립해 본다. <div style="margin-top: 20px;"> <pre> graph TD A[핵심 Agenda 확인] --> B[문제해결 대안 모색] B --> C[SDGs 수립]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제와 연계한 SDGs 내용에 대한 강의(B유형 2-5회차) : SDGs의 5개 축(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 Partnership)을 중심으로 각 축과 관련된 각 목표별 내용을 지역문제와 연계하여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한다. 토론과 워크숍의 사전 지식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div>	
강의준비 사항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빔프로젝트 사용 (✓) <li style="width: 50%;">■ 인터넷 사용 (✓) <li style="width: 50%;">■ 유인물 자료제공 () <li style="width: 50%;">■ 음향기기 사용 (✓) <li style="width: 100%;">■ 기타 (전지와 포스트잇, 매직펜, 그룹별 원형 테이블로 좌석배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유형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진행
	1차	지속가능발전의 의의를 밝히고, SDGs의 수립 배경과 내용, 활용 방안을 설명한다.	강의
	2차	SDGs 17개 목표를 참조하면서 각 그룹별로 지역사회의 핵심 Agenda를 도출한 뒤 그 Agenda의 개념도를 작성한다.	워크숍
	3차	각 그룹별로 도출된 핵심 Agenda를 해결할 대안을 Brain Writing 기법을 활용하여 모색한다.	워크숍
	4차	각 그룹별로 도출된 핵심 Agenda와 대안들을 모아 SDGs 17개 목표로 구성해 본다.	워크숍
	○ B유형		
	구분	내용	진행
	1차	지속가능발전의 의의를 밝히고, SDGs의 수립 배경과 내용, 활용 방안을 설명한다.	강의
	2차	SDGs 1, 2, 3, 4, 5, 11(People축)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쟁점과 지역사회 문제를 설명한다.	강의
	3차	SDGs 7, 8, 9, 10, 12(Prosperity축)를 중심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쟁점과 지역사회 문제를 설명한다.	강의
	4차	SDGs 6, 13, 14, 15(Planet축)를 중심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쟁점과 지역사회 문제를 설명한다.	강의
	5차	SDGs 16, 17(Peace & Partnership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제도적 토대와 지역사회 문제를 설명한다.	강의
	6차	SDGs 17개 목표를 참조하면서 각 그룹별로 지역사회의 핵심 Agenda를 도출한 뒤 그 Agenda의 개념도를 작성한다.	워크숍
	7차	각 그룹별로 도출된 핵심 Agenda를 해결할 대안을 Brain Writing 기법을 활용하여 모색한다.	워크숍
	8차	각 그룹별로 도출된 핵심 Agenda와 대안들을 모아 SDGs 17개 목표로 구성해 본다.	워크숍
9차	지역 내 핵심 Agenda 관련 사례 현장 체험 (5차 강의 후에 배치)	현장 체험	
10차	국내 우수사례 지역 현장 체험 (7차 워크숍 후에 배치)	현장 체험	
교육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대학 이수증 ○ 지역 SDGs 초안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의 의의와 SDGs에 대한 내용을 강의로 전달받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직접 지역 현안과 연결시켜 생각해 봄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물론, SDGs의 Nexus Approach를 익힐 수 있다. ○ 교육의 결과물이 지역 SDGs 초안으로 남게 되므로 결과물의 축적 정도에 따라 지역 SDGs를 수립하는 데 직,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존에 SDGs가 수립된 지역의 경우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풍부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시흥시·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6).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방안 수립 연구」.
- 오수길. (2018). 서울 도봉구 대전차 방호시설 공간 재생 사업. 박상필 편,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 서울: 대영문화사.
- 오수길·김은경. (2014).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363-385.
- 오수길·이창연. (2013). 한국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7(2): 441-464.
- 장호창. (2018).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만나는 수업설계」. 부천: 부크크.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7). 『2017년 제19회 지속가능발전대상 응모자료집』.
- 최순호 외 편. (2008).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환경부. 2016. 「지방의제21의 추진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정합성 연구」.
- Gladwin, T. N., T. Krause & J. J. Kennelly(1995). "Shifting Paradig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874-917.
- UNESCO. (2012). *Shaping the Education of Tomorrow. 2012 Report on th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bridged. Paris: UNESCO.
- UNESCO. (201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arning Objectives*.

SDGs와 ESD: 기업의 기여 가능성

손승우 (유한킴벌리(주) 커뮤니케이션 & CSV 본부장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

1.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기업

1-1) 기업과 지속가능개발 목표

- ① 기업은 SDGs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로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있다.
- ② 기업활동이 사회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 ③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을 위해서도 기업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 ④ 생산, 소비,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인식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기업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개인의 태도 및 철학의 변혁을 위한 교육의 기여에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
- ⑤ 기업은 양질의 직업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지속가능개발의 증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하도록 제안 받고 있다.

1-2)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 ① 기업은 기업의 경영 방식, 제품과 서비스 외에도 사원에 대한 교육, 다양한 소비자 접점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②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에 '지속가능'의 가치와 실행의지를 담고, 이를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실천방안을 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
- ③ 기업은 많은 소비자 접점 - 제품과 서비스 제공 과정, 웹사이트와 SNS를 통한 정보 제공,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소비자 직접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 - 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확산하고, 그 달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④ 또한 기업은 경영 사례의 공유, 사원의 직업교육과 평생학습 촉진, 소비자 교육 참여, 주요 사회주체의 교육 지원활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더불어 기업의 차별적인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확장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2. '지속가능개발 목표' 4번에 대한 기업의 기여 가능성

2-1) 기업의 인재상 변화

- ① 기업은 사회환경 변화에 발맞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digital transformation, data analytics, e-commerce, SNS communication의 역량과 잠재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
- ② 또한 범용의 지식과 일반화된 기술의 활용이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역할을 통해 조직의 변화에 자극을 주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③ 이와 동시에 기업에 요구되는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환경보호, 글로벌 파트너십 등의 세계관에 관심을 가진 인재에 관심을 두고 있다.

2-2) 실효성 있는 평생학습의 구현

- ① 기업의 인재상 변화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기업이 기대하는 인재와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업 내부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며 기업을 이를 실현할 수 있다.
- ② 기업은 평생학습의 실행을 통해 구성원들이 사회변화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혁신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조직과 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특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평생학습을 통한 구성원들의 은퇴 전 역량 강화가 매우 절실하며, 이는 상대적 취약계층인 고령자가 주 직장에서의 퇴직 후 보다 능동적으로 생산 및 소비에 참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 ④ 기업이 실효성 높은 평생학습을 실행할 경우, 은퇴자 재교육과 일자리 창출,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 전반의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⑤ 미국의 경우, 대학에서 학교 내 은퇴자 마을 조성을 통하여 학생 감소를 평생교육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시니어의 평생교육을 대학 교육의 기회로 확장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2-3) 은퇴 전.후 기업 구성원의 사회 접근성 확장

- ① 기업은 구성원들이 주 직장에서의 은퇴 후에 보다 쉽게 새로운 직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단절 없이 사회와 연결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기대수명이 80세를 넘는 상황에서 만 60세의 정년퇴직 연령은 사회활동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되어야 한다.
- ③ 기업은 구성원들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이나 사회활동으로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 또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기회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 ④ 기업이 구성원 개인의 업무적 지식과 재능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그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은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개인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구나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직무교육과 평생학습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 ⑤ 은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기업에서조차 은퇴 프로그램으로 3개월 ~ 12개월 정도의 단기 교육기회나 지원 정도가 이루어지는 정도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은퇴 후에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보다 원활하게 사회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 ⑥ 기업은 Work&Life Balance를 추구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주 40시간(최고 5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가 의무화 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은 더 확보되는 시간을 가치있게 활용해야 한다.
- ⑦ 퇴직이나 주 직장에서의 은퇴는 누구에게나 불명확성의 충격을 안겨주게 되지만, 직장 생활 중에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불명확성이나 두려움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다.
- ⑧ 기업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실행활동이 될 것이다.
- ⑨ 기업의 구성원들이 NGO에서의 자원봉사활동 및 운영 참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컨소시엄 등에 참여할 통로를 열어 둔다면 기업은 지역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는 많은 자원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 ⑩ 정부+기업+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컨소시엄이 제도화 된다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학교, 기업, 지역사회 모두에서 훌륭한 경험과 통합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다.

2-4) 기업의 지역사회 협력 가능성

- ①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가능하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이나 사회책임 경영의 과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
- ② 기업은 본능적으로 보다 많은 잠재고객이 존재하는 곳에서 협력활동을 추구하고자 시도하게 되며, 학교, 지역커뮤니티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유용한 협력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최근 기업은 저출산 고령화, 산업 전환기와 저성장이 맞물린 경영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회 선점을 위해 사회적 고민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회를 찾거나 저소득 지역에 투자하여 개발을 돕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비효율과 낭비를 최소화 하면서 오히려 가치를 높이는 공유경제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④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는 매우 민첩하고도 유용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그 제도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관리의 방법이 아닌 통찰력과 기민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업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실천 사례 (유한킴벌리)

3-1)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1984 ~)

- ① 국공유림 나무심기
- ② 북한 및 몽골 숲 복원활동
- ③ 학교숲 운동(전국 약 700개 학교, 1999 ~)

※ 학교숲 운동 2기 추진 방향 (2019 ~)

- 기존 700개 학교숲을 거점으로 도시 녹색축을 강화하고, 개별 학교의 숲을 3중 녹색필터로 발전시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함. 기존 담장숲 강화/벽면녹화 추진/교실 실내정원 조성함
- 학교숲은 미세먼지 대응뿐 아니라 도시의 녹색 축, 녹색커뮤니티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생명존중 교육과 창의적 교육의 기반 역할을 하게 됨.

3-2) 여성역량 강화

- ① 전국 초.중등학교 여학생을 위한 초경교육 실시 (1972 ~)
- ② 여성 NGO 리더 육성
- ③ 신혼부부소통학교
- ④ 여고생 숲 속 학교

3-3) 평생학습 & 스마트워크

- ① 평생학습 (1995 ~)
 - 예비조 경영(학습조 편성을 위한 4조 2교대/4조 3교대 실시)
 - 사내 교수 발굴, 육성 및 직무/교양교육 개발 운영
 - 사원 평생학습 실천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혁신
- ② 스마트워크경영 도입 (2011 ~)
 - 일과 삶의 조화 추구(업무 몰입도와 개인의 삶과 시간 존중)
 - Digital transformation의 실현과 사회환경 변화 체득

3-4) CSV(공유가치창출) 노력

- ① 공유가치 경영 도입(고령화 문제 해결과 시니어 비즈니스 기회의 공유가치 추구)
- ② 소기업 육성을 통한 시니어 일자리 창출(총 38개 소기업 육성, 500개 시니어 일자리)
- ③ 시니어케어 매니저 육성: 시니어들에게 치매 예방과 위생 교육을 제공(85명, 150개 시설 파견 교육)

3-5) 브랜드 connected CSR 활동

- ① 이른둥이 함께 키우기(이른둥이를 위한 초소형 기저귀 생산, 기부)
 - ② 유아 담도폐쇄증 예방 캠페인
 - ③ 희망뱅크, 유아용 기저귀 기부
 - ④ 딸들에게 희망을(생리대 기부 캠페인)
- 미세먼지 대응 캠페인(유치원/초등학교 마스크 기부, 예방교육 - 동화책/현장

세션 3 - 라운드테이블

좌장: 최도성(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

토론: 맹학균(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이상국(오산시 평생교육과장)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윤녕(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육뉴스부 기자)

권기태(희망제작소 부소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략분과위원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초석, 지속가능발전교육

맹학균(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1. 인류세(Anthropocene) 시대,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

‘지속가능성’에 대한 걱정은 지구 생태계 전역에 걸쳐 우점종으로 군림하고 있는 ‘인간(home sapiens)’이라는 하나의 종이 18세기를 전후하여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촉발되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지탱(sustain)하는 자연환경이 이때부터 현저히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변화는 대부분 생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인간이 지구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세대를 “인류세”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속가능성이란 간단히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즉, 화석연료를 계속 태워도, 플라스틱을 계속 찍어내도, 화학물질을 계속해서 환경 중에 배출해도 우리 후손들의 삶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의 문명을 계속한다면 우리 후손들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문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인류세 시대에 인류의 문명을 지구가 지탱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초석, 지속가능발전교육

지구가 지탱 가능한 방식으로 인류의 문명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문명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초석이 되는 이유이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왜 지속가능발전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담론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습득한 개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문명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나, 환경 중에서 500년간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야 한다. 정치인들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치시스템을 고안해 내야 하고, 공무원들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업인들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성장, 효율성, 편리성 등의 가치보다 지속가능성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가치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4. 지속가능발전교육, 누구를 교육할 것인가?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위해 정치인 및 공무원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 성인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차원의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기업인들에 대한 교육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문제는 기업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그 해결책도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5. 지속가능발전교육,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공무원/학생/교원/시민 등을 위한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녹아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위-교육부-ESD한국위원회가 협업하여 각 교육대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정규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중 홍보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과 지자체 평생교육의 방향성

이상국(오산시 평생교육과장)

1. SDGs 의의와 지자체 평생교육

오산시가 처음으로 SDGs를 접하게 된 것은 2016년 4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네트워크(GNLC)에 가입하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그간 오산시는 2010년부터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행한 결과 ‘교육도시 오산’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도시 전체가 평생학습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원시와 공동으로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Mid-Term Review 2017을 개최하여 세계 여러 나라 교육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8월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228개 전국 시군구별 지방 소멸보고서에서 오산시는 유의미한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소멸위험도 매우 낮은도시 오산시 전국3위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소멸위험도 가장 낮은도시: 오산시
- 경기도 인구 피라미드 유형: 유일하게 오산시만 별형,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전입형 젊은도시

오산시가 이와 같이 소멸위험도가 낮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변화와 정주성에 교육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며, 현대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을 넘어 지자체, 학교,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에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9년간 오산시에서 실행한 다양한 혁신교육과 평생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와 지자체 평생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모두를 위한 교육’오산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시스템

오산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쉽게 평생학습을 누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활동의 연계로 지역의 여러 부문이 활성화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평생교육 전반을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정의했습니다. ‘교육에 집중하게 된 계기’도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알고 아끼며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 그리고 평생학습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변화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오산시는 2012년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는 ‘배달강좌 런앤런’을 시작으로 평생학습 마을, 백년한글학교 등 여러 사업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민의 요구에 따른 취미교양 위주의 교육 편중,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시민리더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단초로 시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시스템인 ‘오산백년시민대학’을 만들게 되었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산 ESD-SNP System』은 ‘오산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체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ESD-Space(공간): 삼삼오오 모여 학습을 하고 학습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공간 조성사업으로 지역의 학습거점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6개의 캠퍼스로 조성하였고, 지역 유휴시설을 ‘징검다리 교실’로 지정하여 25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 ESD-Network(네트워크):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지역의 주요 대학, 학교, 금융기관, 대형마트가 협약을 체결하여 학습공간을 내어주고 공동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네트워크 조성, 그리고 일본 시부야대학과 글로벌 평생학습 교류, 핀란드 에스포시와 혁신 교육 교류사업을 진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3) ESD-People(사람): 도시가 지속가능발전 하려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지속가능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개인의 발전을 위해 학습했다면,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지속가능한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역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현안과 정책과 관련된 교육과정인 ‘오산공작소’, 2년제 시니어 리더양성 교육과정인 ‘느낌표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에 시민이 주인이 되어 교육, 기획, 운영,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활동가가 1,457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간, 네트워크, 사람 간 유기적 연계와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 플랫폼인 ‘오산시 교육포털 『오늘e』’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교육의 접근성이라는 말과 같은데, 가깝고 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산시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교육에 집중한 결과, 2017년 11월 오산시 정주성 조사에서 시민의 84.2%가 ‘오산에 더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제언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은 많이 편리해졌지만,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회변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SDGs가 중요한 만큼, 대동맥인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 및 합의를 벗어나 모세혈관까지 연결되어 전파될 수 있는 지자체 단위의 ‘실행가능한 표준 ESD 모델’이 발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더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전 생애에 걸쳐 ES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교육(공교육)과 평생교육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포괄적인 연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좌절도 경험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육을 통한 도시 변화’는 지역 말초신경까지 변화시키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산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체계 『오산 ESD-SNP System』



2. 오산시 지속가능발전교육 공간 『오산 ESD-Space』

▶ **장벽이 없는 지역통합학습시스템**
 오산시에는 평생학습관이 없다. 이런 장애요인을 역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바꾼 것이 하나로(路) 통합학습연계망이다. 시민들이 생활권 10분 내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동을 기준으로 자리 잡은 주민자치센터를 전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캠퍼스로 지정 운영하고, 이를 촘촘히 연결하는 252개의 징검다리교실에서 배달강좌, 학습살롱, 학습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

오산백년 시민대학

○ 징검다리교실 🏠 공공기관 🎓 협력 대학교 🏢 협력 기관 🏡 민간 평생교육시설

- ▶ 6개 캠퍼스 조성 : 초·중·고급 연계학습 및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 ▶ 252개 징검다리교실 조성 : 민간시설의 학습공간 조성으로 생활권 10분 내 학습가능
- ▶ 민·관·산·학 주요기관 협약 체결 :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을 위한 여러 기관 파트너십 구축

▶ 징검다리교실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공공기관	공방	교습소	금융기관	기업	꽃집	노인복지시설
252	10	13	19	2	1	1	2
	도서관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작은도서관	이동시설	일반음식점	장애인시설
	13	9	2	10	13	4	2
	종교시설	주민공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카페	평생교육시설
	25	2	11	12	4	43	12
	피부관리실	학교	회의실	휴게음식점	다문화시설	평생학습마을	
2	5	3	1	1	30		

3. 오산백년시민대학 교육프로그램

▶ **궁금하면 생기는 『물음표학교 운영: 5,000명~6,000명 참여**
 · 개념: 살아가면서 궁금한 내용이 모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

배달강좌 런앤런	학습살롱	오산공작소
· 약 600강좌/연간 ·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강좌	· 약 300강좌/연간 · 시민이 기획한 참여형 강좌	· 약 50강좌/연간 · 오산시 지역 현안 연계 강좌

▶ **시니어 리더 양성 『느낌표학교』 운영 : 기수별 50명 참여**
 · 개념: 50세 이상 시니어 대상으로 인생을 재설계하고 리더로 양성하는 2년제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 기본소양과정 · 내용 : 민주시민 기본교육, 지역학, 인문사회, 역량 분석, 인생재설계, 학생자치회 구성 및 커뮤니티 활동, 현장체험 및 컨설팅 등	· 학과별 전문수업 · 학과 : 4개 · 사회적경제 플랜학과, 라이프 플랜학과, 지역발전 퍼실리테이터학과, 지역 전문튜터학과

4. 오산 현안, 정책 연계 교육과정 『오산공작소』

(단위 : 강좌, 명)

분 야	강좌수	강좌명	인원	지역연계 교육장소
합 계	44		1,880	
활동가	22	오산동물매개활동사 양성과정	20	징검다리교실
		토론디베이트지도사(입문) 양성과정	20	신장캠퍼스
		토론디베이트지도사(심화) 양성과정	20	중앙도서관
		오산시민정원사(원예) 양성과정	30	NH농협은행
		소통리더 양성과정	40	시청 물향기실
		오산시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과정(17회진행)	600	6개 캠퍼스
일자리	3	평생교육사2급	25	한신대
		한국어교원2급(3학기)	30	한신대
		아동가족전문학사학위(2년)	15	한신대
봉 사	1	오산건강관리활동가 양성과정	20	새오산신협
공동체	18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 A	30	새오산신협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 B	30	시청 물향기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오산e야기 제1탄	20	이마트
		알아두면 쓸모있는 오산e야기 제2탄	20	이마트
		알아두면 쓸모있는 오산e야기 제3탄	20	이마트
		알아두면 쓸모있는 오산e야기 제4탄	20	이마트
		찾아가는 9988 행복특강 제1탄	50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9988 행복특강 제2탄	50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9988 행복특강 제3탄	50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9988 행복특강 제4탄	100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주시민교육(3월)	100	중앙도서관
		민주시민교육(4월)	80	중앙도서관
		민주시민교육(5월)	80	중앙도서관
		민주시민교육(6월)	80	중앙도서관
		민주시민교육(8월)	100	중앙도서관
		민주시민교육(9월)	100	중앙도서관
		민주시민교육(10월)	100	중앙도서관
		마을축제기획교육	30	오산대학교

※ 오산공작소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중 민주시민교육 등, SDGs와 관련이 큰 교육과정임

※ 교육과정 후 시민들은 활동가, 일자리, 봉사, 공동체 분야에서 지역 연계 활동 진행

양질의 지속가능한 유초중등 교육(ESD)에 관한 소견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마무리 할 때까지 다음의 교육목표를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함. 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도달해야 할 최저성취기준이며, 양질의 유·초·중등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기관과 그 소속 교육관련 종사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해 공공적 투자를 확대하여 영세하고 질 낮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을 대체해야 할 것임.

- 특히 어머니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출산 전후 1년 혹은 100일의 유급휴가를 가지도록 함. 유아는 부모 품속에서 ‘절대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함. 또한 만5세 미만 자녀에 대한 1일 2시간 이내 부모의 “육아시간”제도를 일반 기업에까지 확산될 필요가 있음.
- 농산어촌에 마을마다 ‘마을학교’를 세워 원거리 통학이 불편한 유아와 초등저학년을 함께 수용함. 이러한 학교는 아동의 호기심과 흥미 활동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emergent 교육과정을 운영함. 학교규모가 소규모라고 해서 행정적·경제적 측면에서 통폐합되어서는 안 될 것임. 아동생활권역인 면단위에는 작은 마을학교가 있어야 함.
- 취학 전 교육과정은 건강한 생활과 즐거운 생활을 두 축으로 함. 인지적 부담을 주는 지식 중심의 교육을 최대한 없앴.
- 모든 공교육에 드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비는 부모의 부와 소득에 비례하도록 함. 이 원칙은 Rawls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으로 적용함.
- 양질의 공교육을 위해 교육복지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 경비(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교재, 시설과 설비, 교원 충원 등)에 최우선 비중을 둬.
- 유아의 건강을 위해 모든 시설과 설비는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숲 등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양질의 초등교육을 위해 초등 저학년의 발달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제공함.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을 중심으로 함.

- 모든 학생들은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칠 때까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할 것임. 초등 저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습의 기본 도구가 되는 모국어(읽기와 쓰기), 수리력(가감산), 외국어(알파벳, 듣기와 말하기 등)의 기초능력을 보장함.
-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충분한 돌봄과 지원을 보장받아 건강한 신체, 정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다음단계 학습을 위한 도구적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초등 고학년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 등 기본 교과를 고르게 학습할 기회를 가짐.
- 아무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칠 때까지 자연수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어야 함. 초등 고학년을 마칠 때까지 국어의 읽기와 쓰기, 외국어의 말하기, 듣기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취하도록 도움.
-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지나치게 인지적 학습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유의함.

초등학생은 아무리 늦어도 저녁 8시 이전에는 귀가하여 쉴 수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11-14세의 정서와 감성의 뇌가 활발히 발달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음악, 미술 중심의 예술 교육을 넘어 연극, 영화, 디자인, 공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을 다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체육, 예술, 실과를 강조하여 손과 온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조작과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함.
- 학생들은 학교의 교과, 각종 활동 및 행사를 통해 경쟁보다 사회협동성, 소질과 적성의 발견, 진로 탐색, 창의적 사고법 등을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함.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어린 시절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함.
-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영과 간단한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야 함.
- 아동수가 적은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은 중학교와 협동 운영하여 중학교의 전문적인 교사로부터 교과전담 교과의 학습지원을 받도록 함.
- 특히 학생 수용의 학제는 6-3-3제, 교육과정은 9-3제, 교사 양성 운용은 6-6제를 택하고 있어 교육의 기본 제도 간 미스매치로 인해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 운용의 경직성과 함께 학교 간 협력과 유연한 교육 제공을 방해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은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중학교까지 모든 기초 기본 교육은 학생이 지닌 어떠한 차이(성, 지역, 계층, 언어, 종족, 국적 등)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권, 기본학습권으로 차별 없이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아무리 부진한 학생들이라도 8개의 기본 교과와 함께 예술, 기술, 제2외국어 등의 하위 과목들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중학교 3학년을 마칠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수학을 완전히 익혀야 함.
- 학생들은 과학기술의 탐구 방법을 익히고, 필수적으로 해야 할 실험·관찰, 직접 체험을 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관심사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학생들은 지식정보화사회의 필수기능인 IT에 대한 기초·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및 사용에 대한 윤리적 소양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IT 기술을 익혀, 장차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자라나기 위한 기본 능력을 지녀야 할 것임.
- 교육은 문명변화를 읽고, 이에 적응하며 나아가 이를 주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임. 현대문명변화는 물리적 세계의 세계화와 사이버세계의 지능정보화를 특징으로 함. 학생들은 세계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와 제2외국어 하나가 아니라 학기 혹은 학년마다 하나의 외국어를 알파벳, 발음, 기본 단어와 문형, 일상적 표현 등 기초 기본 수준으로 익힐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고, 이후 각종 AI형 통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주요한 외국어를 여행자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미중패권 경쟁, 남북간 통일을 향한 체제 및 이념 경쟁 등 세계정세교육을 통해 나라의 장래에 대해 책임질 준비를 함.
- 학생들은 AI를 장착한 로봇과 더불어 공부하고 일할 준비를 하고, 지능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로서 IT와 BT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 수학, 과학, 공학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부해야 함. 특히 수학은 정확한 연산능력보다 수학적 사고력, 문제 정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임.

- 중학교 3학년을 마칠 때까지 재난대피법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배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숙련되도록 길러야 함.
- 모든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을 마칠 때까지 외국어, 심신의 건강을 위한 체육 종목 한 가지 이상, 정서 순화 및 취미를 위한 예술 장르 한 가지 이상,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업기술 한 가지 이상을 숙달해야 함(1인 1직, 1외, 1예, 1체)
- 중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하고 거리로 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일정 수준의 직업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어느 누구도 직업기술을 배우지 않고 졸업하거나 거리(사회)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함.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기업 등의 협동적 노력이 요구됨. 중도 탈락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유인 정책을 수립하되 그들의 의견을 물어 대안을 마련하며 여기에는 맞춤형 방안도 필요함.
-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0시간 이상의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타인 및 국가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경험을 해야 함.
- 학생 수가 적은 중학교는 단설보다 초등 고학년을 포함하여 6년제로 운영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위협에서 벗어나며 각종 교육활동에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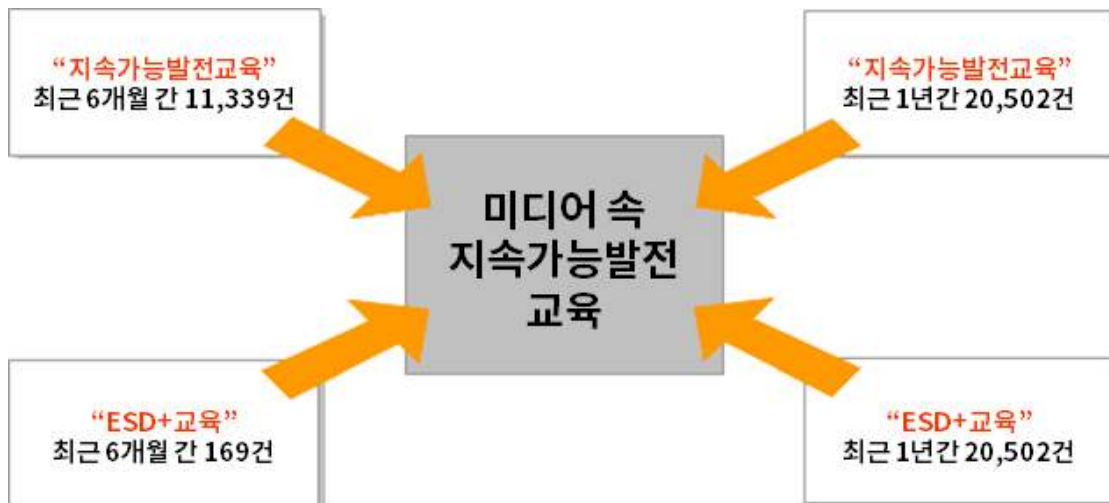
■ 고교에서 모든 심화·특수·전문·직업 교육은 학습자가 지닌 차별이 되지 않는 차이, 즉 적성과 진로에 따라 알맞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아야 함.

-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1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야 함.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는 이를 위해 진로별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야 할 것임. 학교는 교과 내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 진로미결정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함.
- 특히,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은 진로탐색과정에,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직업기술교육으로서 진로집중과정에 충실히 임하여 최종적으로 1인 1직의 직업소양을 갖추어야 함. 고교를 마치면서 누구나 진학 후 학업 혹은 직업 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함.
- 진학계 고교는 문이과를 넘어서 문이예체를 분화시킨 인문, 사회, 경상, 국제, 이학, 공학, IT, 보건 의료, 농수임산, 체육운동, 체육산업, 음악, 미술디자인, 연극영화, 문화콘텐츠 등에 걸쳐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지역 내 학교구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진로에 중요한 계열과 과정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진로별 학습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함.
- 학생이 어느 계열이나 과정을 선택하든 지능정보사회(IT와 BT, 수학 과학 기술공학)와 세계화사회(외국어, 국제정세교육)의 기본이 되는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함.
-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수학을 완전히 익혀야 함.
-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수의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자신의 진로에 꼭 필요한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함.
-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0시간 이상의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타인 및 국가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경험을 해야 함.

대중과 소통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 ESD 인식 확산을 위한 미디어 전략을 중심으로 -
 이윤녕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육뉴스부 기자)

I. 서론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단순한 환경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교육의 질’과 ‘평생학습’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의미의 교육 이슈를 다루고 있다.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 양질의 직업교육,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보장 등 우리 교육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슈들이 성과목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추구하는 가치와 성과목표가 교육당사자나 관계자들을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널리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점이 있다. 이에 미디어 전략을 중심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대중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언론에 비친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논의에 앞서 최근 1년 사이 각종 언론에 노출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16) “지속가능발전교육”를 키워드로 검색한 뉴스 기사의 경우, 최근 6개월 기준 11,339건, 최근 1년 기준 20,502건에 달했다.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ESD 교육”으로 검색한 뉴스 기사의 경우에는 최근 6개월 간 169건, 최근 1년 간 296건이 검색되었다. 17)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현재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에 노출된 관련 기사 수는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걸까.

16)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이며, 해당 기사 중에는 ‘지속가능개발교육’ 자체가 아닌 단순히 ‘지속가능개발’과 ‘교육’이 한 기사에 함께 언급되어 검색된 경우도 포함되었다.

17) ‘ESD 교육’으로 검색한 것은 단순히 ‘ESD’로 검색했을 경우 기술공학이나 의학 등 다른 분야에서 쓰는 동일한 용어들이 함께 검색되었기 때문이다.

Ⅲ.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대중 인식 현주소 분석

1. 단순 행사 안내 및 지자체 사업 홍보 보도

기사의 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언론 기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하나는 ESD 관련 국제포럼이나 연수, 축제가 개최된다는 단순한 행사 알림을 담은 게시판형 기사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시·군·구에서 ESD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사업에 선정됐다는 식의 사업 안내 및 단순 홍보 형태의 기사였다. 이 같은 종류의 기사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프로젝트나 유네스코 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학교나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었다. 사업이나 행사 안내를 다룬 딱딱한 기사 외에는 기획성 보도나 사례 중심의 생생한 보도를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보도자료 출처 자체가 지자체다 보니 기사를 다룬 언론사 역시 대부분 지역 언론사에 그쳤다.

▼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다룬 언론 기사 제목들

태안군 ESD 인증사업 선정
시흥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유네스코 ESD 인증
통영RCE, '통영ESD국제포럼' 열어
도봉구,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
부산시 '클린에너지학교' 사업, 유네스코 ESD 인증
경기융합과학교육원,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수 운영
금천구 유네스코 인증 'ESD금천창의인재학교' 발표회

2. 대중에게 낯선 용어 및 활동의 추상성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룬 기존 미디어의 보도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ESD를 비롯한 각종 관련 용어들이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상당히 낯설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평소 유네스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용어의 문제가 ESD의 대중적 인식 확산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때문에 설령 '지속가능발전'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와 범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는 약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하나의 개념으로 굳혀진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 대중들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나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묘사가 필요해 보인다.

3. 다소 멀게 느껴지는 주제와 미디어의 무관심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다룰만한 주제인데 교육 현장 안팎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이슈들과 비교하면 ESD는 다소 먼 주제로 받아들여진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추구하는 성과목표들이 언론이 현재 다루고 있는 교육 이슈들과도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주는 추상성과 환경 교육에 국한된 일종의 편견 등으로 인해 미디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V.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대중 인식 확산을 위한 미디어 전략 방안

1. 사례 발굴의 중요성 및 사회 이슈와의 연계성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대중 인식을 넓히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장의 구체적이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보여주는 일이다. ESD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잘 담겨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창의탐구수업을 했다’, ‘문화다양성 등 사회쟁점에 대해 체험하고 토론했다’, ‘문화교류활동을 했다’는 식의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일례로 대구 도원초등학교의 지속가능개발교육을 다룬 한 기사는 ‘매주 화요일 다 쓴 건전지와 우유팩을 새 걸로 교환해주는 사업과 연계해 ESD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쓰면서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이어서 매우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2018.04.07. 뉴시스)¹⁸⁾ 추상적이거나 직관적이지 않은 개념일수록 사례는 더욱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생생한 사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대중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 교육 문제나 고교 무상교육, 다문화 교육, K-MOOC 사업 등 교육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회이슈들이 결코 ESD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연장선상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2. GAP2030의 핵심 파트너(key partner)로 ‘언론’ 선정

대중의 인식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ESD의 가치와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ost-2019 ESD 이행을 위한 후속프로그램 GAP2030의 핵심 파트너(key partner)에 ‘언론’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GAP에서는 DESD에서 제기된 제도적 지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핵심파트너로 정부부처, 교육/훈련기관, 교육가, 청년, 지방 정부 등을 선정했는데 후속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언론’이 추가되기를 희망한다. 대중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ESD가 되기 위해 GAP의 우선 활동영역 (Priority Action Areas)에 있어서도 ‘언론과의 협력 강화’를 지정해 ESD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는 방안을 담았으면 한다.

3. ESD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의 자체적인 노력

교육 현장에서 ESD의 성과목표들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대중들이 ESD의 가치와 성과목표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교육의 기회를

18) 해당 기사에서는 6개월간 수거한 폐건전지(4150개)와 우유팩(38kg)을 새 건전지와 확장지로 바꾼 뒤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교실 사진과 함께 사례를 소개했다.

박탈당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SDG4의 궁극적인 취지라고 한다면 이러한 중요한 가치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각적인 방식으로 ESD의 가치를 대중에게 확산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언론들 또한 최근 다뤄지고 있는 교육 이슈들과 관련해 다양한 기획 보도나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ESD의 사례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높였으면 한다. 교육 기사를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ESD가 추구하는 교육의 보편적인 가치들은 미디어에서 분명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사안일 것이다.

V. 결론

국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그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ESD에 담긴 성취목표나 이행 내용들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적절히 담고 있지만, 일반 대중은 물론 교육관계자들조차 ESD의 개념과 구체적 사안에 대해 생소한 경우가 많다.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상(理想)에 그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활성화를 위한 후기 실행방안 논의에는 대중의 인식 확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다.

학교, 시민, 마을, 기업과 함께하는 ESD

권기태(희망제작소 부소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략분과위원장)

4분의 발제에서 ESD의 도전과제, 분야별 구체적 대안, 학교와 지역에서 실천, 기업의 기여까지 잘 정리 해주셨음. 발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면 좋겠음.

1. 다르게 돌아보기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이 낮은가?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해석과 적용은 고정적인가?
- 지속가능발전 용어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가?
- ESD를 환경교육 중심으로 인식하는가?
- 정부의 관심도는 낮은가?
-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2. ESD를 환경중심의 교육에서 사회, 경제영역으로 본격적인 전환필요

- ESD가 모든 분야를 포괄한 교육을 하지만 아직 환경부, 환경중심의 교육으로 전개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성과도 거두었음
- 그러나 DESD를 거치면서 이제는 환경분야를 벗어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ESD가 되도록 시도했고, 더 많은 노력 필요
- 시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서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이고, 낡은 것(패러다임)을 대체하는 ESD교육으로 전환

3. GAP2030 이행의 한국적, 선도적 고민을 실천

- GAP2030이 구체화되어서 나오기 전에라도 우리가 먼저 한국적 내용에 대한 고민,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여 펼쳐보는 것도 필요
- 정책통합과 ESD연계, 모든 교육기관의 종합적 교육환경, 학생들에게 권한을 주는 변혁을 실천하는 교육자, 창의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청년, 실천이 나타나는 지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확산을 준비하면 좋겠음
- 국제공통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하지만, 많이 고려할수록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어색함과 불일치로 나타나기도 함

4. 학교와 함께 하는 ESD

- 과거(2007년) 주5일제 대비 교육과정 개편 시 지속가능발전이 포함되어 현재까지 교육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현재의 ESD 내용을 SDG를 중심으로 강화하여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구체화시키고 쉬운 실천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학교교육에서 ESD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ESD 시범학교 확대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

5. 시민과 함께하는 ESD

- 정책적 프레임은 아무리 잘 짜더라도 제대로 이행되려면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
- 시민들이 생각하는 힘과 행동하는 힘을 ESD로 바꾸는 것이 중요. 지역사회와 함께 ESD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시민, 교사, 공무원, 기업인 등에게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권에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마을과 함께하는 ESD

- 마을이 학교다!
- 마을에는 SDG1 취약계층해소부터 SDG17 파트너십까지 모든 일이 있음
-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교육자든 행정가든 전문가든 활동가든 마을에서 ESD를 통해 SDG를 펼쳐가도록 확장되었으면 좋겠음

7. 기업과 함께하는 ESD

- 기업은 본연의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되 보여주기가 아닌 내실화를 기해 확산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국민인식 개선 필요
- 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ESD에 적용하는 방안검토

V. 부록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세부목표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목표 4.3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4.4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세부목표 4.5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세부목표 4.6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세부목표 4.7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4.a	4.a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세부목표 4.b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 이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세부목표 4.c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펴낸날 2018년 12월 7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김광호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전화 02-6958-4120/4280
이메일 esd@unesco.or.kr

간행물등록번호 ED/2018/DI/12